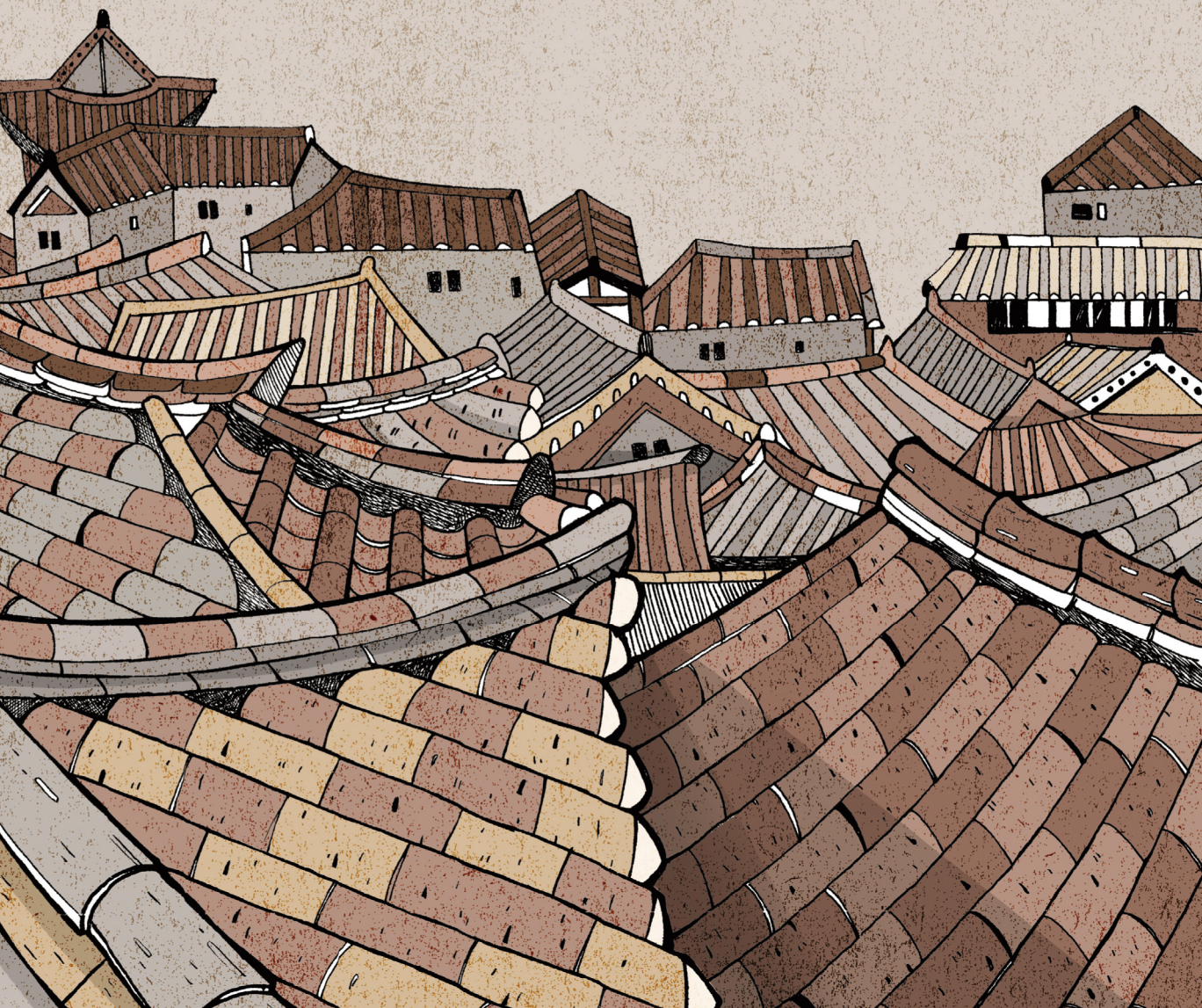


가는의치
자주옥
주려
거들한가



들어가며

국가한옥센터는 한옥문화 진흥의 싱크탱크로서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사업을 지원하고, 한옥 정보 체계화를 위한 지식기반을 구축하며, 한옥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국가한옥센터가 한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수요를 양적조사로 파악해왔다면, 2020년에는 실제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해 현대 주거공간으로서의 한옥이 지닌 거주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본 단행본은 국가한옥센터가 2020년에 실시했던 한옥주거실태 기록화조사 대상 중 고쳐 쓰는 한옥 4건을 선정하여 제작되었다. 4건의 사례는 서울의 기존한옥 밀집지역인 계동·통인동·천연동·충정로2가 소재의 도시한옥이며, 이들 사례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수상작, 관련 도서에 대한 조사, 한옥 건축가 자문을 통해 선별되었다.

거주자가 들려주는 한옥의 가치

한옥주거실태 기록화 조사는 사례별로 추진된 최소 2회 이상의 거주자 면담 내용을 기초자료로 건축물의 물리적 현황, 각 공간의 쓰임새 등을 기록하고 도면화하였으며, 일부 장면은 그림으로 남겼다.

단행본은 “준규네 한옥”, “통인동 한옥”, “천연동 한옥”, “서대문 한옥” 순으로 시작된다. 한옥에서 홈스쿨링하는 아이의 꿈이 자라는 준규네 한옥, 젊은 부부의 감성이 물씬 담긴 통인동 한옥, 시간의 흔적을 고이 간직한 천연동 한옥, 한옥건축가가 사는 서대문 한옥이 독자들을 기다린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옥의 거주가치 홍보에 대해 공감해주시고 흔쾌히 조사와 단행본 발간에 응해주신 거주자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목 차

1 아이의 꿈을 키우는 집 북촌 준규네 한옥	05
2 미니멀 감성라이프 통인동 한옥	43
3 시간의 흔적이 곱게 쌓인 집 천연동 한옥	73
4 한옥건축가의 집 서대문 한옥	113

01

아이의 꿈을 키우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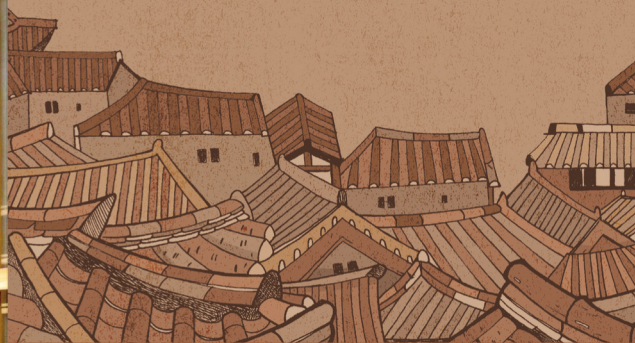
북촌 준규네 한옥







북촌 준규네 한옥



위치	서울시 종로구 계동
공사유형	개보수
설계	거주자 DIY
입주시기	2011년
가족구성	부부와 1명의 자녀, 강아지

한옥과의 만남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북촌 한옥마을에 사는 준규네 가족입니다. 18평 조그만 한옥이지만 저희 부부와 준규, 그리고 강아지 곰곰이(강아지)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준규네 가족의 한옥 입주

살금살금 조심해야 했던 아파트,
아들을 위해 이사를 결심하다.

저희 준규가 기질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아이예요.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준규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에게 하는 말이 늘 “뛰지 마!” 였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준규가 집에서 뛰다가 아랫집에서 올라오면 그때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조심하는 게 낫지, 무작정 다그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랫집은 알고 지내는 이웃이었는데 준규 아빠는 알고 지내는 사이일수록 말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사 가자는 결정에는 준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준규네

아파트에 살았던 준규네,
한창 뛰놀 나이의
준규는 항상 살금살금
걸어야 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한옥이나 단독주택을 알아본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집값이 오를 만한 아파트를 생각했어요. ‘준규를 위해서 옮기자’라고 결정해놓고 이사갈 곳을 알아볼 때는 알만한 동네와 또다시 아파트를 찾아본 거죠. 물론 학군 문제도 있었어요. 안암동에 살았었는데, 준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준규 또래 친구들 집에서도 어느 정도 학군이 있고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동네로 이사를 고려할 때였거든요. 저희도 분당이나 이촌동, 성북구와 출퇴근 거리가 괜찮은 경기도까지 넓게 이곳저곳을 생각했어요. 한 1년간 탐색한 것 같아요. 준규 아빠는 온라인으로, 저는 직접 발품을 팔았죠.

실제로 계약 직전까지 갔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동부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였는데 집 앞이 한강 둔치고 놀이터도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계약하기로 한 날, 계약금을 들고 지하철 타고 가는 와중에 갑자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사 가려고 했는지를 되짚어봤어요. 정작 준규는 그 집을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방향을 바꿔 마당이 있는 주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준규 아빠가 인터넷에서 매물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 집을 발견했어요. 아이러니했던 게 사실 준규 아빠가 취직한 첫 직장이 안국역 바로 앞이었고 그때 얻었던 원룸이 여기 근처였다고 해요. 번뜩 이 동네도 아이를 키우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인의 눈으로 동네를 보던 관점과 부모의 눈으로 동네를 보는 관점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우연찮게 작은 한옥 매물을 봤는데 한번 가볼래?”라고 준규 아빠가 말했어요.

“이 집 누구 집이에요? 조금 더 놀다 갈래요!”

준규를 데리고 평일에 둘이 왔어요. 첫인상은 다소 웅한 느낌이었는데, 준규는 한 바퀴 쏙 둘러보더니 다락방에 냉큼 올라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 누구 집이냐, 조금 더 놀다 가면 안 되냐”라고 하더군요. 좁은 집이지만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마당과 골목 같은 공간들이 있어서 준규는 집을 더 크게 느꼈나 봐요. 그날 집을 보고 돌아가서도 준규는 이 집을 3층 집이라고 하면서 다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이 눈높이에서는 마당이 1층, 마루가 2층, 다락을 3층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준규 아빠랑 다시 주말에 와서 결정했죠.

한옥이사에 대한 주변의 반응

“우리, 반 미친 척하고 가보자!”

주변에서는 걱정을 엄청 했어요. 친구들도 하나같이 “잘 생각해봐.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소위 ‘집테크’도 안 될 거라며 만류했죠. 양가 부모님도 모두 말리셨어요. “너희가 아파트에 살면서 호강에 겨워 그런다. 단독주택이 얼마나 관리하기 어렵고 추운 줄 아냐”라며 걱정을 꽤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저만의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고건축 답사 가서 새벽녘에 홀로 정자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제가 나무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옥 특유의 정취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집이 작긴 해도 그렇게 나뭇결을 만지며 바깥바람 쐬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반 미친 척하고 가보자”한 거죠.

이사 오고 나서 친구 가족들이 많이 놀러 왔었거든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물놀이하고 자갈 놀이도 하고요. 아빠 엄마는 사랑방과 마루에 누워서 수다 떨다 고기 구워 먹고 그랬죠. 친구와 지인들이 오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하더니 와보고 나서는 너무 좋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준규네

비가 오는 날이면 마당에
화분들을 내어놓고
빗소리를 들었다.

◎준규네

어릴 적 준규는 마당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름을 가장 좋아했다.
그런 준규를 지켜보며,
부부는 쪽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다.



◎준규네

집안 곳곳에는 책이 가득
했고 준규는 책을 참 좋아
했다.



이사 후 한옥생활 이야기

제가 어릴 적 살던 집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옥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아이에게도 이 집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죠. 오고 나니 기대 이상으로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지인들도 많이 부러워하고요. 물론 저희 부부도 좋았죠.

딱 이사 왔을 당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준규가 노란 고무신을 신고 대문 밖에 빨래를 널다가 마루로 쏘르르 뛰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는 ‘엄마!’ 불렀던 장면이요. 골목과 마루를 뛰어다니는 준규의 모습이 아파트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때, 아! 우리 이사 왔구나! 딱 느꼈죠.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하면 준규가 후다닥 뛰어나와서 우산으로 자기 자전거도 덮어주고, 신발은 마루 밑으로 넣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사 왔던 5살 즈음이었을 거예요.

◎준규네

준규는 바구니를 들고
골목에 빨래 너는 것을
도왔다.



◎준규네

준규: “사실 저는 엄마가
말씀하시는 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하고 있는 장면은 엄
마, 아빠와 화분에 식물을
심어서 골목길에 놔두었던
거예요.”



우리 집이 되기까지

입주를 위해 짐을 줄이고 줄이다

저희 집이 마당을 제외하면 건축면적 약 12평 정도 되거든요. 좁죠. 이사 오기 전에 짐을 정말 다 내놔어요. 이사 가기 한두 달 전부터 소파, 침대, 책장 등등 웬만한 가구는 중고나라에 내다 팔며 다이어트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빼고는 거의 버렸으니 70% 이상 짐을 줄인 것 같아요. 책도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다 팔거나 기부했어요. 그래서 준규 아빠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의 VIP예요.

그런데 그렇게 짐을 줄이고 이사를 했는데도 이삿날 마당에 짐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커다란 가구 중에선 그나마 옷장을 챙겼는데, 그것도 가지고 있던 세 짝 중 두 짝만 가지고 간 거예요. 당장 수납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간에 배치해 보니까 품이 맞지 않더라고요. 치수로는 가능한데 기둥이 기울어져 있어서 딱 들어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한 짝 버리고 그다음 해에 나머지 것도 버렸어요. 지금도 살면서 계속 버려요. 요즘도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내 눈에 띄면 다 버린다”예요.

◎준규네

이사 오던 날 골목길에
쌓인 준규네 짐



살림살이를 정리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죠. 그런데 또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쓰던 흰색 이케아 책장을 옮겨놓고 보니 가구가 공간에 녹아들지 못하고 붓 뜬다고 할까요. 아파트와 한옥의 공간감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팔고 버리고 주고 그렇게 됐죠.

신기하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요즘엔 가전도 안 사고 옷도 안 사고 하다못해 냄비도 큰 사이즈는 안 사요. 공간이 좁고 수납할 곳이 부족하니까 라이프스타일 또한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예 무언가를 사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줄었어요.

물론 아이는 자신의 물건에 애착이 깊기 마련이니까 그동안은 저희 부부 물건을 많이 버렸죠. 1년에 한 번 방 정리를 할 때는 준규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준규 방 물건도 많이 비워낸 편이에요.

우리가족에 맞게 고친 한옥

이사를 결심하고 나서는 집을 조금 수선했어요. 낡은 구석이 있기도 했고, 앞으로 계속 살 집이니 우리가족에 맞게 고쳐야겠다 싶었죠. 가장 처음에는 북촌 일대에서 한옥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에 연락을 취했어요. 저도 인테리어 일을 했던 터라 일반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을 보이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업체 입장에서 대수선같이 골조를 바꾸는 공사면 하겠는데 저희 집은 인테리어 수준이라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공사 범위를 다시 되짚어봤죠. 일단 방바닥, 욕실, 보일러 손보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설비 공사에 뛰어난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하자, 그러면서 지인에게 추천받아 계약을 했죠. 욕실 내 위생설비 정도만 바꿨어요. 공간구조는 거의 그대로예요.

방바닥에 황토 모르타르를 철거한 뒤 보일러 배관을 교체하고 다시 모르타르를 미장했어요. 그리고 욕실 조금 수선하고, 그리고 이전 거주자가 대문 위치를 지금의 동쪽으로 바꾸면서 원래 대문이 있던 곳에 약간의 포켓 공간이 있었어요. 움푹 비어 있는 터라 안방과 연결해 벽장처럼 쓰자고 손을 좀 봤어요. 마당에서는 마루를 ㄷ자로 연결했어요. 보이시죠? 사랑방 쪽 마루는 새것이고 거실 쪽 마루는 옛날 것이예요.

사실 들어올 때 대문도 수리하고 싶었는데 업체가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지 못 했어요. 해체도 쉽지 않아서 결국 청소만 하고 사용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대문 힌지(가구나 문짝의 결합부위) 부분의 나무가 썩어가더라고요. 준규 아빠는 업체를 부르자고 했지만 그러면 수리비가 또 드니까 제가 ‘우리가 하자’라고 했어요. 대충 스케치를 하고 읍지로 철물점에 가서 부품을 만들어 직접 수리했죠. 4년 정도 살던 때에 오른쪽 한 번 갈았고 그다음 해에 왼쪽 한 번 갈았어요.

◎준규네

매입 당시 한옥



문간 포켓공간에 문들 짜 넣어 안방 벽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랑방쪽 마루를 새로 짜 넣어 기존의 마루와 연결했다.

다락에도 창을 내어 채광을 더욱 좋게 했다.



별도 화장실을 두고 있는 사랑방은 에어비엔비로 외국 손님들을 받던 공간이다.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천장부 서까래와 아자창 문살, 그리고 뜨끈한 온돌 설비로 한국 주거문화를 물씬 느낄 수 있다.



부엌은 상부장을 과감히 없애고 조리기구와 좀 더 드러나 보이게 배치했다.



주방과 준규방 사이 거실 겸 서재로 쓰고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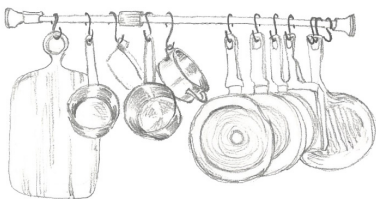
준규네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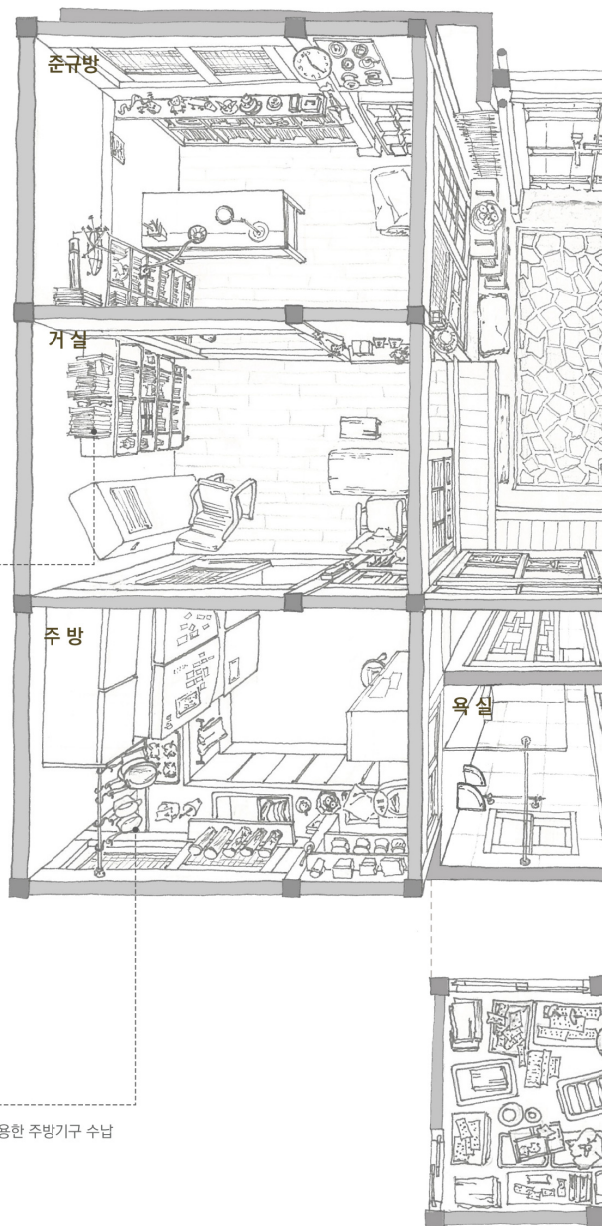
마당에 비친 햇살을 바라보는
준규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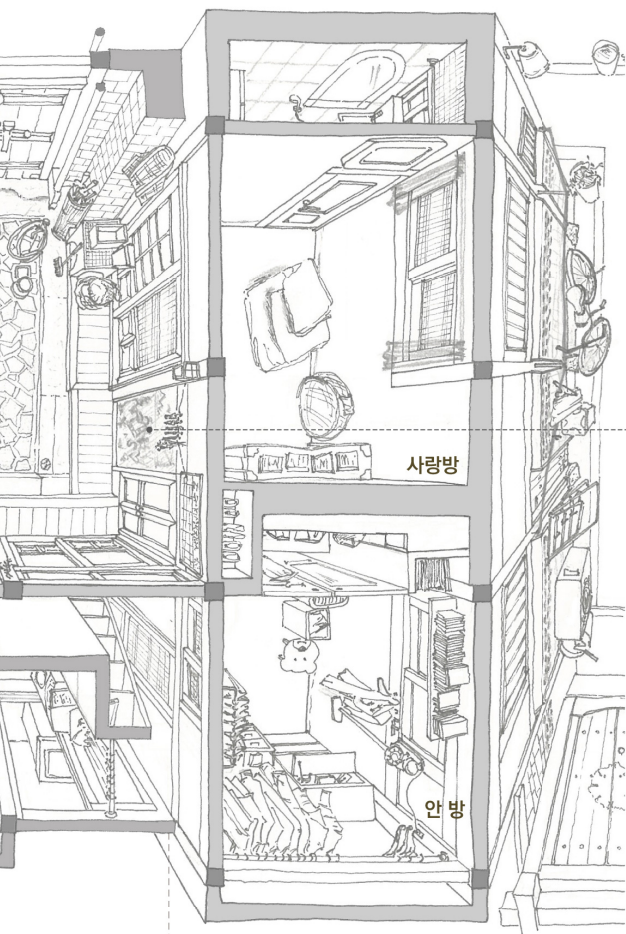


엄마 취향의 고재 책장



고리를 이용한 주방기구 수납





준규아빠와 꿈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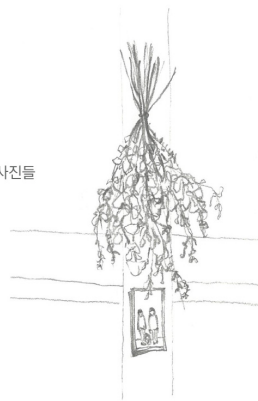
준규가 그린 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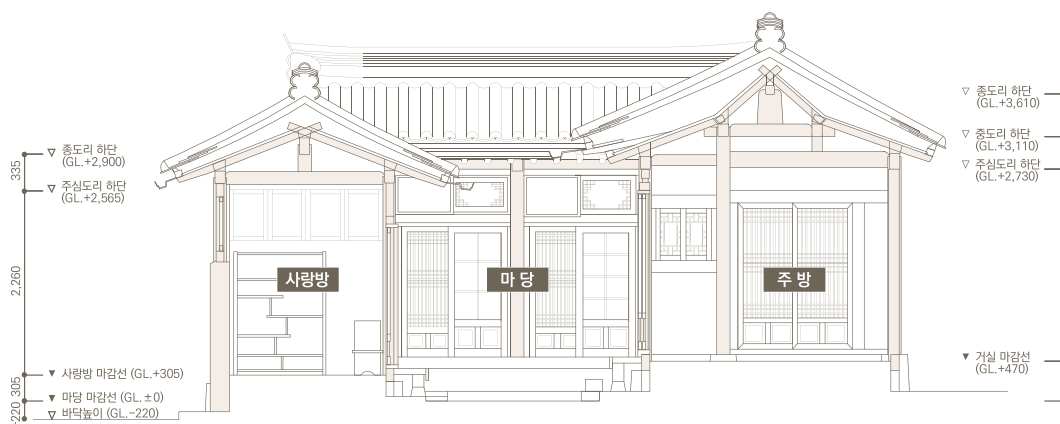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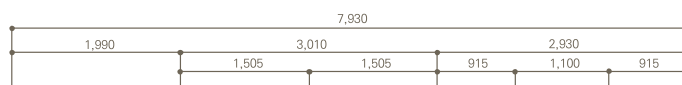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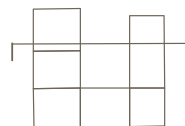
다락

다락창 한 칸에
준규의 레고 작품이 갤러리처럼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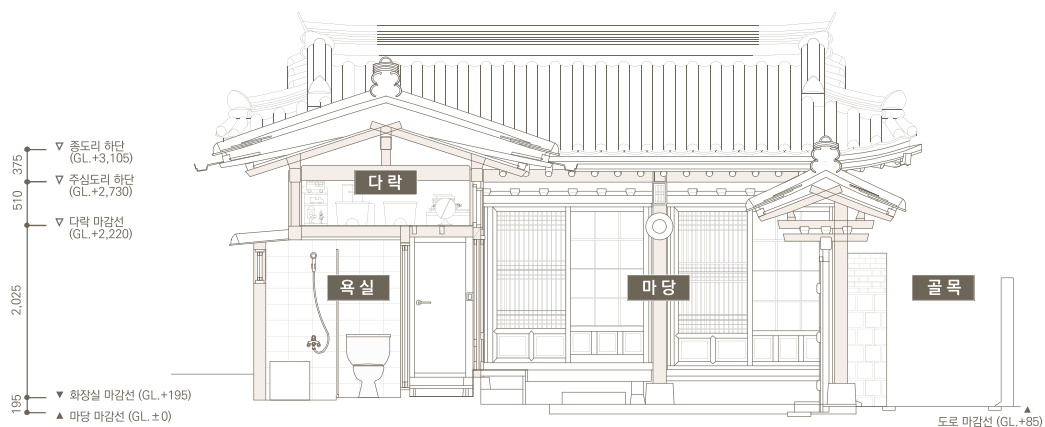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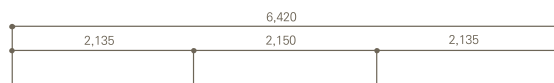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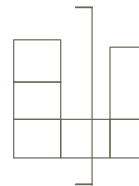
집 안 곳곳에 걸려있는 가족사진들



준규네 한옥 횡단면도



준규네 한옥 종단면도



우리 집의 매력

우리가족 최애공간

“햇살 따라 의자를 계속 움직이며 쫓아가요.”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마당과 툇마루예요. 평소에는 주로 거실에 음악을 틀어 놓고 툇마루에 누워있거나 마당 캠핑 의자에 앉아 툇마루에 다리를 올려놓고 책을 읽고는 해요. 하반신이 따뜻하게끔 햇살 따라 의자를 계속 움직이며 쫓아가요.

◎준규네

여덟 적 준규는
해바라기처럼 햇볕이
비치는 곳을 따라다니며
책을 읽고는 했다.





◎준규네

문지방에 걸터앉아
다리로 마당의 햇볕을
쬐는 준규



◎준규네

마당에 테이블과 캠핑 의자를 두고 준규는 레고 조립을, 준규 엄마는 책을 본다.

가장 좋아하는 한옥의 계절

“내내 봄과 가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대문을 열어놓고 마당에 앉아 있는 때가
너무 좋거든요.”

내내 봄과 가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문을 열어놓고 마당에 앉아 있는 때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겨울도 겨울 나름대로 좋아요. 공기는 쨍하게 상쾌하면서 황토 바닥은 뜨끈 뜨끈하니 엉덩이를 땔 수 없어요. 얼마 전 겨울, 사랑방에 외국인 숙박 손님을 받았는데 그분이 분명 오후에 외출한다고 했는데 계속 안 나가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 물어봤더니 방바닥의 마법에 내 몸이 붙어서 나갈 수가 없대요. 저희 집은 틈새 풍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옷풍이 없어서 난방만 잘 하면 춥지 않아요.

준규: “저는 겨울이 제일 좋아요. 모기가 아예 없어요!”

한옥이 춥고 더워서 불편할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는 입장에서 모기 문제가 제일 불편해요. 저는 괜찮은데 준규 아빠랑 준규가 특히 모기에 예민하거든요. 문을 닫아도 나무로 지은 집은 틈새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12월 초부터 2월 말 정도 까지만 모기가 없다고 보면 되고, 그 이외에는 내내 모기가 있어요. 침실에 모기장 텐트를 치고 살고요. 비 오면 보일러 켜서 방 한 번씩 말리고, 여름 되면 한두 번씩 공간 전체를 마른 쉼을 태우는 연기로 훈연해요. 그리고 준규 아빠가 팔팔 끓인 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챗구멍을 청소하죠. 한국관광공사에 등록된 숙박업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기라든가 불편한 점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옥에 익숙하지 않아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은 있었죠.

이사 온 지 첫해에 가족들끼리 여름휴가로 제주도에 일주일 다녀왔거든요. 나름 환기되라고 창문 하나 열어두고 나머지는 잘 잠그고 대문도 잘 닫았죠. 그런데 그때 서울에 비가 엄청 왔어요. 저희는 혹여 마당 배수 구멍이 좁아 물이 찰까 걱정은 했는데 집에 오니 예상치도 못한 광경을 마주했죠. 대문 안쪽으로 푸른곰팡이가 싹 퍼져 있는 거 있죠. 화장실 문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준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콘크리트 건물이면 곰팡이가 났을 텐데 이 집은 살아 숨 쉬는 집이라 이끼가 생겼다”고요. 여름에 별이 짹짹 비치면 기둥에서 찢득찢득한 송진도 나와요. 진짜 살아있는 집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집을 비우더라도 전반적으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방충 문만 닫고 가죠.

준규: “겨울엔 추우니까 샤워를 할 때 늘 화장실 창문을 달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엄마가 늘 ‘뒷문 열어라~’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밀폐되게 만들지 않아요. 한겨울에도 어디 한 군데는 바람이 통하게 해두는 편이에요. 대신에 자주 안 쓰는 창문이나 방문은 경우에는 비닐로 차단해서 틈새 바람을 막죠. 그밖에는 겨울에 보일러나 수도가 얼지 않게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있겠네요.

한옥주택 관리하기

사실 한옥은 마음먹고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절약하는 법이란 걸 알죠. 집 관리에 거창한 건 없어요. 봄 되면 방충문을 빼서 골목에 널어놓고 시원하게 물청소한다거나, 거미줄 한 번씩 제거하고. 겨울이 되면 창호 라인 따라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뽁뽁이와 비닐로 두르죠. 그 위에 스테이플러로 한 번 더 박아 고정하고요. 수도꼭지도 감싸요. 부지런한 분들은 봄마다 기둥에 오일 칠을 한다는데 저희는 안 해요.

한옥에 살기 위해서는 사실 가족 중 한 명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해요. 방 청소만 해서는 끝나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유지관리를 위한 레이더를 세우고 있어야 하죠. 물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리를 해 나가면서 집에 대한 애착이 커져요.

◎준규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즈음이면 창호를 단열 뽁뽁이와 비닐로 감싼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선하는 것이 가능한데 지붕은 예외
 예요. 지붕 기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년 단위로
 1,500백만 원인데 저희 집 규모에서 보면 현 기와를 들어내 황
 토를 다시 채우고 30% 정도만 새 기와로 교체할 수 있는 비용
 이에요. 나머지는 기존 기와 중 상태가 괜찮은 것들로 채우죠.
 공사하기 전에 먼저 실내에서 천장에 곰팡이가 핀 부분을 살펴
 서 그 위치를 주변으로 확인을 해요. 곰팡이가 핀 부분을 보면
 식물이 자라있거나 기와가 쪼개져 있다거나 문제가 있죠. 그렇
 게 파악한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편이에요. 요즘 나온 기와는
 무거워서 모두 교체하면 구조에 무리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새 기와가 황토가 쓸리지 않게끔 암키와와 수키와 사이
 의 맞물림이 좋아요.

좌측 집의 기와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새 기와
 이고 우측 뒷 집의 기와가
 현 기와이다.



한옥마을과 공동체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서울시가 추진하던 ‘서울휴먼타운’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중 한 사례로 강동구 서원마을이 나왔거든요. 100~15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마을인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한 집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 동네로 며느리가 이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며느리를 데리고 집집이 인사를 다녀요. 공동체가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으니깐요. 지금 보면 거부감이 다소 느껴질 수 있죠.

이 이야기를 왜 하나면 저도 업무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동체 이야기를 자주 해요. 한 동네에 터를 잡고 살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이웃과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공동체가 강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를 강제하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느낌이 들고 거부감이 먼저 생겨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동체를 조직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가 사는 동네에 비슷한 또래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겠죠.

저희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거든요. 우리 세대가 동네 사람들 등쌀에 부모님들이 이말 저말 하셔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커뮤니티가 반드시 이상적일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웃과 교류하면서 삶에 행복감을 느끼거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고 믿어요. 아파트에서의 삶보다 한옥에서의 삶이 그런 교류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준규 아빠가 말했듯이 물리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 커뮤니티가 발생하고 문화가 생기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무작정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저희도 준규랑 곰곰이(강아지 이름)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준규네

골목길에서 벌어지는
물총 싸움

©준규네

옆집 동생들과 장난감
카드 교환을 하는 준규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

그런 의미에서 늘 아쉬운 건 놀이터예요. 이 동네에서는 북촌 탁구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사장님이 아이들에게 맘껏 음료수를 꺼내 먹게 하고 편히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엄마들은 미안하니까 음료수 한 상자씩 보내기도 하고요. 탁구장 사장님이 서울시 공모 사업 같은 것도 신청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도 여시고요. 항상 그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파트와 비교해 아쉬웠던 건 동네 근거리에 놀이터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저희 집과 학교가 가깝지만, 운동장을 외부인에게 열지 않아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삼청공원에 가는 편이에요. 사실 놀이터는 아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공간인데 그게 아쉽죠. 골목이 대안이 되기도 하지만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요. 지금이야 창문을 열고 친구들끼리 골목에서 이야기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목에 아이들이 없었어요. 한동안 ‘내가 우리 동네 놀이터 하나를 만들고 말겠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웠어요.

준규네 가족의 미래계획

준규:

“저는 여기가 참 좋아요. 이사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넓은 한옥이면 좋겠어요.”

준규가 점차 자라면서 우리 가족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이곳에 계속 살게 될지, 준규 말처럼 넓은 공간에서 살고 싶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한옥은 아파트보다는 빨리 사고팔기 어렵잖아요. 이 집에 오고 나서 우리 가족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는 있겠지만 이 집을 팔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몇 년 살다 보니까 손볼 곳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집을 짝 고칠 생각은 있어요.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동네에 카페를 운영하던 후배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12시쯤에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당에다가 밥을 차려주고 같이 맥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죠. 아파트 살 때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한옥에 이사 오고는 다른 누군가가 저희 집에 오는 게 반갑고 자연스럽게 변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왔다 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손님까지 합하면 더 셀 수 없고요. 아파트는 일단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아주 사적인 공간이니 누구를 안 부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옥에서는 방에 안 들어가고도 마루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의 여지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한 방문들이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한옥에 와서 달라졌던 부분이기도 하고 얻은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원래 개인주의적인 성격인데,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야깃거리도 많이 생겨난 계기인 것 같아요.



©준규네

준규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던 날

한옥에 살아보니까 생활에서의 불편함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냉정히 봤을 때 한옥의 진입 문턱을 만드는 건 ‘생활의 불편함’보다 경제적인 조건과 불예측성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부모 세대가 서울에서 마당 있는 한옥에 살 수 있다’ 이 조건만으로도 경제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 없어요. 게다가 한옥은 전세가 극히 드물어요. 없다고 봐요. 그러면 매매인데, 공시지가가 낮아 대출받을 때 어려움도 있어요.

또 한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무슨 말이나면 입지나 상태에 따라 금액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다고 DB가 구축되어 있어서 개인이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도 않아요.

대안은 꾸준히 발품을 팔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결과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대출을 받아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범위의 집을 매매해서 수선한 다음 입주해 산다’라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다음은 두려움이에요. 요즘 ‘4차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변화가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한옥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문제를 계속 공개해 사람들에게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넓혀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공공 한옥을 임대해 주고 체험 수기를 공유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알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옥에 살면서 제일 좋은 점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요. 약간 과장해 이야기하면 준규가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을 때와 지금 한옥에서 살았을 때의 모습이 분명히 다를 거로 생각하거든요. 삭막한 아파트 숲과는 달리 여기 동네는 낮은 건물들과 고궁 담벼락을 가까이하고 살아요. 아이가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접하는 공간들이 아이에게 훨씬 따뜻한 영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준규는 어릴 때 기왓장과 문살이 있는 집을 그렸어요. 무의식적으로 이 집과 동네가 아이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요? 저랑 준규 아빠도 달라진 점이 있겠죠. 남들과 다르게 사는 방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준규네

준규가 직접 만든 곰곰이
자동 밥그릇

“한옥의 장점은 계량화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남들과 다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같을지라도 대치동 아파트에서 로봇을 만드는 아이와 북촌 한옥에서 로봇을 만드는 아이는 다르게 비치거든요. 한옥의 장점은 계량화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단점은 수치화되는 것들이라 눈에 쉽게 띠는 점이 있네요.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면 행복할까?’라는 고민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한옥에 거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기가 어렵다면 일단은 숙박체험을 해본다거나 월세나 전세로 임시적인 삶을 살아보고 한옥의 매력을 한껏 느끼고 나서 선택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어느덧 10년 넘게 한옥에 살아와서, 한옥에 사는 게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한가? 조금 헛갈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옆집이 2년 전에 이사를 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아이가 있는 네 식구인데 그 집 아빠가 정말 도사남이라 한옥에 오기 싫어했었대요. 지금 2년 살았는데, 그 집 아빠가 더 이사 안 간다고 한 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요. 아이가 어릴 때는 한옥에 꼭 살아보는 게 좋아요. 꼭 한옥이 아니어도 좋으니, 일단 마당이 있는 집.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꼭 도전해보세요.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수 있어요.

◎준규네

준규는 한옥 한 칸에 만든
그림 벽에 그림을 그리며
창의력을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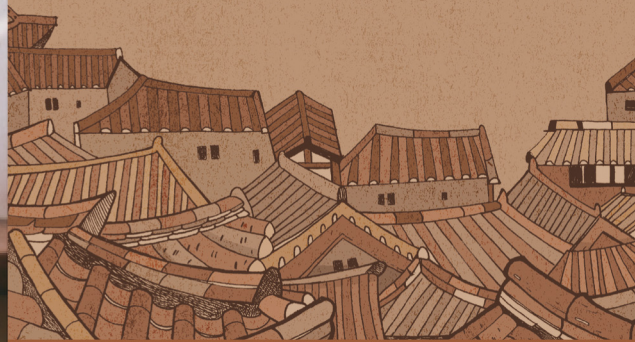
02

미니멀 감성라이프
통인동 한옥





통인동 한옥



위치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공사유형 개보수

입주시기 2011년

층수 지상 1층

가족구성 부부와 고양이 세 마리

한옥과의 만남

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인동 한옥에 사는 김진호, 장보현 부부입니다. 이곳에서 9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의 30대를 여기에서 보냈네요. 30대와 함께 한, 우리 부부와 같이 성장한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라는 만큼 이 집도 함께 변했네요. 이곳에서 저희 부부가 결혼하게 되었고 책도 두 권을 썼어요.



젊은 남녀의 한옥 입주

“이 정도면 우리도 얻을 수 있겠는데?”

이 집에 이사 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동네의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저랑 함께 일하는 지인이 이 근처에 살고 계셔서 미팅을 하러 자주 왔거든요. 동네가 동네 같았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경복궁 옆이다 보니까 건물 높이 제한이 있어서 인왕산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 동네에 살고 싶다고 생각했죠.

한옥에 대한 로망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잠깐 농가 한옥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쥐불놀이하고 개구리 잡고 마당에서 물놀이했던 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한날 서대문구에 있는 정말 작은 한옥주택을 취재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어떤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우리도 얻을 수 있겠는데?’ 멀게만 느껴졌던 한옥이 저희 레이더 망에 불쑥 들어온 거죠.

그런 마음을 내비쳤더니 한 지인이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있으니 한옥을 구해봐라’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때 마침 이 집이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살던 원룸을 빼야 하는 시기와도 꼭 맞아서 이사를 결심했어요. 마치 인생의 전환점 같죠.

한옥살이 10년, 변화한 삶의 사고방식

“한옥에 살면서
어릴 때 몰랐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사 초기에는 집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저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월세로 살고 있다 보니 주어진 상황에서 잘 살면 그뿐이었죠.

◎김진호



◎김진호

이사 초기 통인동 한옥은 예비부부의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내부 모습은 보와 서까래가 모두 합판과 벽지로 덮여있어 한옥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저는 조선 시대 중기 농촌 가옥들이 모여 있는 집성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의 기억은 굉장히 권태로웠거든요. 사건도 없고 사고도 없고 늘 똑같은 농촌의 풍경이요. 그러다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라이프 스타일도 현대적으로 바뀌었죠. 별생각 없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도시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한옥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입주 2년 차 되던 해에 이 집의 계약이 연장되었어요. 이왕 여기서 더 살 거면 잘 고쳐서 살아보자고 해서 이 집의 원래 모습을 살려 보자 했죠. 한옥에 입주를 하고 또 이렇게 한옥의 본 모습을 찾아주기 시작하면서 옛날의 기억이 점차 떠오르더라고요. 어렴풋이 느껴지는 어릴 적 원초적 감정들과 전통적이었던 생활 모습이 교차되면서 제 일상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몰랐던 삶의 가치도 느껴지고요.

집을 수리하면서 “우리 내년에 결혼을 하면 어떨까?” 자연스럽게 결심하게 되었어요. 집수리를 마친 여름에 결혼식을 올렸죠. 이 시기에 저희 부부가 함께 준비한 책도 나왔어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소중한 행복한 순간을 모두 이 집과 함께 했죠. 요즘은 결혼을 집에서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들 집에서 결혼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집의 본래 모습을 찾아주고자 했던 저희의 사고방식과 집이 맞닿아있는 것 같네요.



©김진호

살고 있던 한옥을 고쳐
결혼식을 올렸다. 병풍
그림과 소품 준비까지
모두 부부가 직접
준비했다.

◎김진호

한옥과 어울리는
전통혼례복



◎김진호

부부의 결혼식 모습



우리 집이 되기까지

한옥과 미니멀리즘

집에 가전제품과 가구가 별로 없죠? 원래 저희가 미니멀리스트라거나 그런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을 처음에 꾸미려고 했을 때 이것도 가져다 놓고 저것도 가져다 놓고 많이 했는데 도대체 어울리는 구석이 잘 없는 거예요. 옛날 한옥 집에는 가구나 물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건들을 줄이게 되었어요.

한옥이 넓고 시원한 분위기를 주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꺼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은 TV도 부피가 굉장히 크고 까만 화면이 한 공간을 깊게 차지하는 게 저희는 좀 불편했어요. 최대한 비어있는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소화된 살림살이로
꾸며진 통인동 한옥의
모습

우리 집은 우리가 직접 고친다

여기 서까래가 다 합판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벽도 합판으로 덧대어져 있었고, 벽지도 한 13겹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970~80년대 신문지도 나오고요. 한 편에 살면서 부분부분 막아두고 두 달을 꼬박 공사했던 것 같아요.

거실 천장을 보면 서까래 하나 빠진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모래가 다섯 포대 나왔어요. 한옥 기와를 얹기 전에 진흙을 덮잖아요. 그 진흙이 바싹 말라서 여기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나는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분진이 뿌연게 뒤덮였어요. 일단 일을 저질러버렸으니 끝까지 한 거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이 한옥이 처음 지어졌을 당시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집에 사시던 분들이 집을 덧대서 보수하셨겠죠? 저희는 원래 이 집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찾아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전 세입자분은 옥상 사다리를 바깥 화장실 옆에 세우고 쓰셨던 것 같아요. 그걸 원위치로 가져다 놓았죠. 저 쪽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여닫이문인데 배수로를 공사하면서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면서 배수로를 꺾어내 문이 열리게끔 했어요.

거주자마다 공간을 쓰는 법이 다를 텐데 저희는 원래의 모습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안채 쪽 문도 단열 때문인지 책장으로 다 막아뒀던데 뜯었어요. 어두침침했던 방이 환해졌죠. 공간도 더욱 넓어졌고요.

◎김진호



◎김진호

그간 덧대어 보수된
부분을 철거하여 서서히
드러나는 한옥 본래의
모습



사다리를 원래 위치에
두어 옥상정원을 오고 갈
때 잘 활용하고 있다.



부엌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요리에 취미를 붙이다

실내를 제대로 고치기 전에 주방을 가장 먼저 손봤어요. 주방 환경이 장판과 벽지로만 되어있어서 물에 취약했거든요. 바닥과 벽을 타일로 마감하고 싱크대도 인공 대리석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옥이 아주 넓거나 천장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부 장은 시야를 막고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뜯어냈죠. 주방 세팅을 딱 하고 나니까 요리를 제대로 즐기게 됐어요.



©장보현, 김진호

부부는 아내가 쓴 글과 남편이 찍은 사진을 묶어 요리 아카이브책을 냈다.

도시생활자의 식탁

장보현, 김진호 저 |
한스미디어 |
2018년 02월 05일

전·월세 거주자가 집을 위해 투자하는 이유

실내를 뜯기 시작했을 때가 2년을 살고 2년을 연장하던 시점이었어요. 돌아보면 먼저 주방을 고친 덕분에 요리가 즐거워지면서 책까지 내게 됐죠. 그러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부담스러운 결심이긴 했으나 사는 동안 만족해서 산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소비가 아닐까 생각했죠. 비용 부담이나 시간적 노력 모두 자기만족이니까요.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만큼은 이 집이 저희 집이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몸을 움직여서 만족할 만큼 가꾸고 즐길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믿어요. 세세히 비용과 시간을 따지면 머리가 아프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했던 건 ‘이 집을 고쳤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 였어요. 내 집이 아니더라도 내 집처럼 살아야 공간도 바뀌지는 것 같아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주인의 지원 또는 무관심이기도 해요. 보통 세를 올리지만, 다행히 저희 집주인은 세를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저희가 이 집에서 불안하지 않게 계속 생활을 꾸려갈 힘이 되는 거죠. 매번 계약할 때 마다 올리겠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옆집은 그러다가 결국 이사를 갔거든요.

통인동 한옥



시렁 벤치와 꼬망이



집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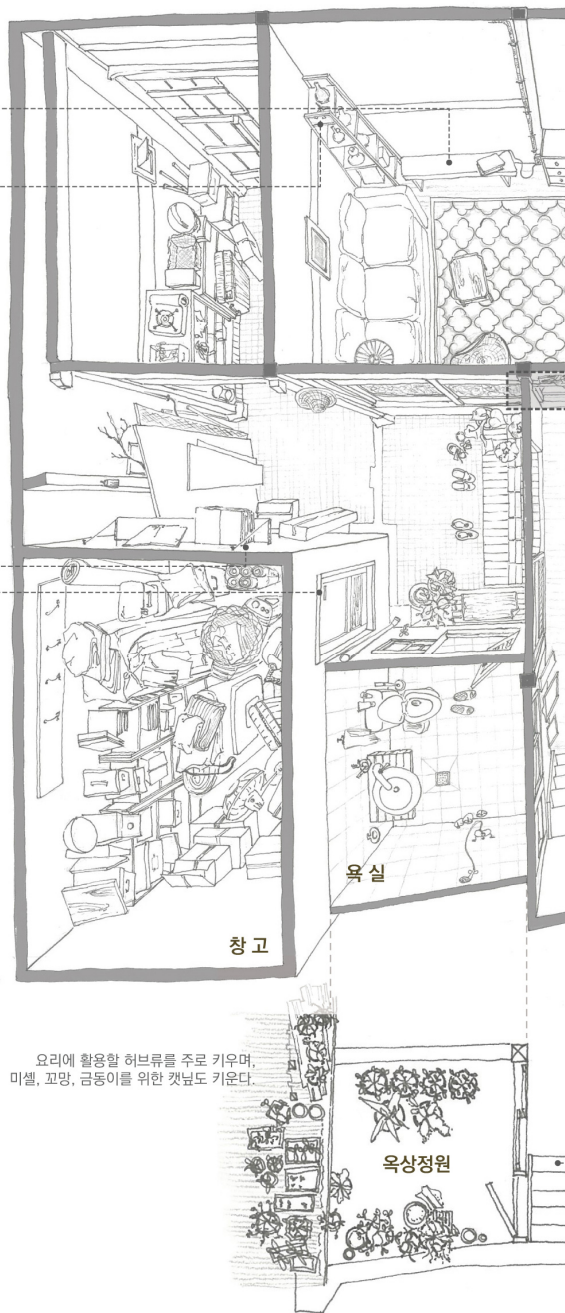


툇 걸어 놓은 마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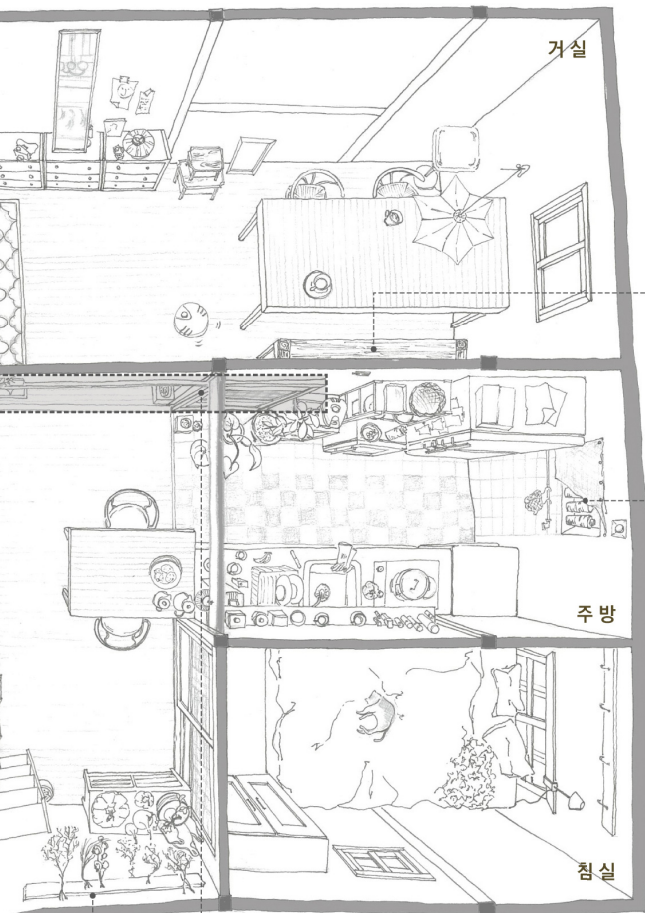
HEUNGook's

길 고양이 흥국이를 기리는 명패



요리에 활용할 허브류를 주로 키우며, 미셀, 꼬망, 금동이를 위한 캣넛도 키운다.

옥상정원



거실

부부가 직접 찍은 사진을
콜라주해 만들었다.



자연냉장 양념 선반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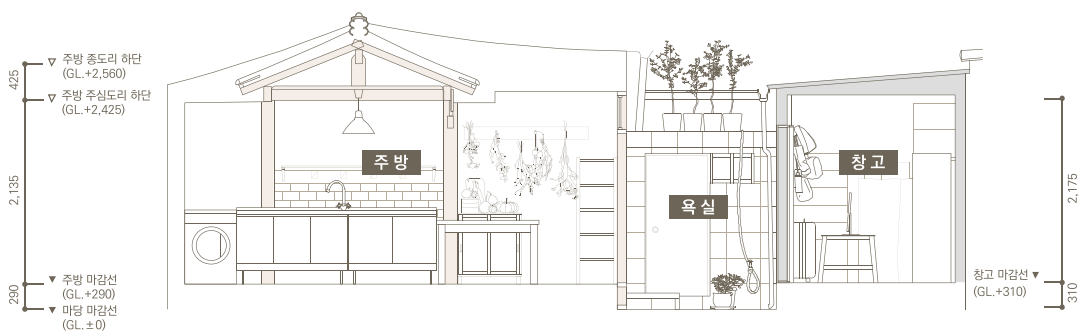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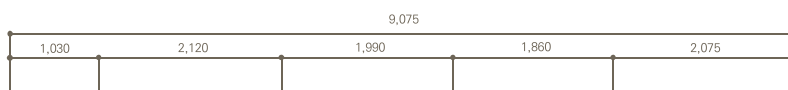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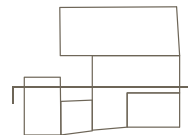
침실

요리에 감초 역할을 하는 드라이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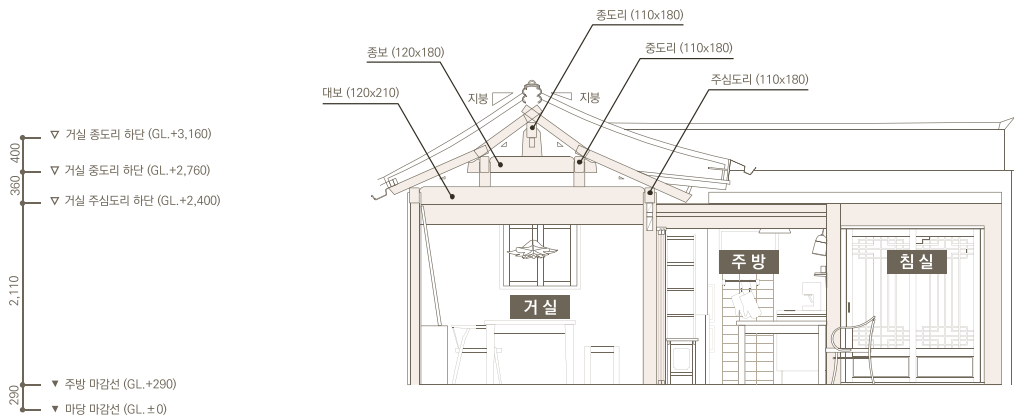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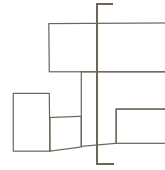
트랜스도어, 겨울모드나 여름모드로 자유자재 변경가능

통인동 한옥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목재 사다리.
전 집주인이 쓰던 것을 자리만 옮겨 활용하고 있다.

통인동 한옥 횡단면도



통인동 한옥 종단면도



우리 집의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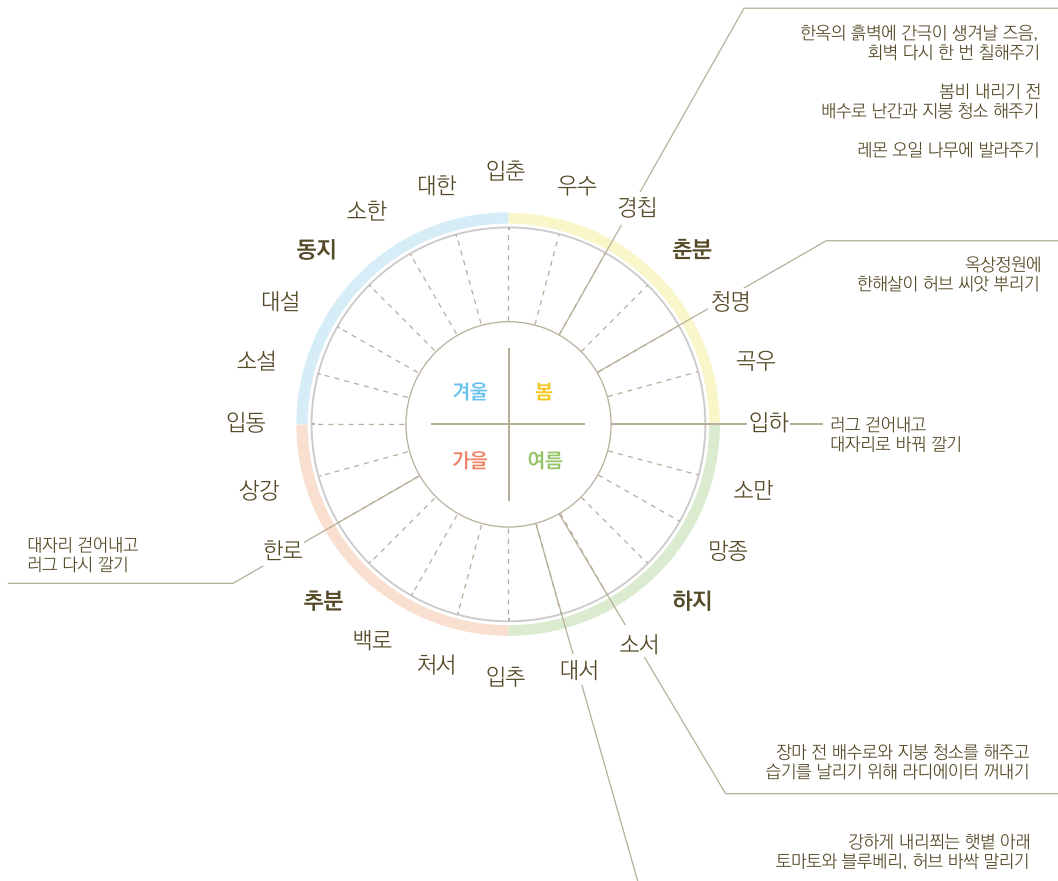
절기의 멋과 맛을 아는 한옥살이

“아파트와 달리 한옥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할 일들이 있고
그 시기에 따라 저희가 호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절별로 루틴이 있어요. 24절기의 각 절기를 해석해보면, 날씨에 관한 정보도 많지만, 때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있어요. 신기하게도 절기와 거의 맞아떨어져요. 예를 들어 경칩이 되면 동토가 녹기 시작하면서 한옥 천장에 있던 회벽이 갈라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회칠을 한 번 더 발라준다거나, 여름 장마철 비가 새기 전에 배수로 낙엽을 다 걷어낸다던가 자연스럽게 절기 변화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계절이랑 호흡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와는 분명 다른 것 같아요. 아파트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손댈 것 없이 ‘항상성’을 유지하잖아요. 아파트와 달리 한옥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할 일들이 있고 그 시기에 맞춰 저희가 한옥과 함께 호흡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받이 청소, 배수로 정리, 거미줄 제거 등의 작업을 꾸준히 해요. 미닫이문도 한 번씩 기름칠을 해줘요. 지붕의 기와는 저허가 이사 오기 전부터 덮여 있어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아요. 드는 비용도 '0원'이죠. 다 우리 인건비니까요. 우리가 직접 몸으로 하거든요.



24절기에 따른 통인동 한옥의 관리 방법

신선한 공기가 순환하는 한옥

“따로 환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항상 손볼 것들이 있죠. 오래된 집이니깐요. 별레 문제도 늘 신경 써서 컨트롤해 줘야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래도 한옥이 단열에 약하니까 추위에 노출이 되기는 하죠. 겨울이 되면 그만큼 옷을 더 껴입고 내 몸 관리를 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옥집의 단열 문제가 단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옥에서 지내다가 친구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면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에 적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간이 개방적인 한옥에 반해 현대식 건축물은 워낙 단열이 잘 되고 공간 구획이 모듈화되어 있으니까요.

단열이 잘 된다는 것은 곧 통풍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선한 공기를 계속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옥이 낫지 않을까요. 따로 환기를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되니까요.

우연과 비일상의 연속

“계절마다 다른 맛과 멋을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한옥의 매력은 우연성과 비일상성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죠. 계절마다 다른 맛과 멋을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24절기, 아침부터 밤까지 자연이 순환하고 있음을 느끼죠. 또 그걸 저희 나름대로 즐기고요. 여기 오면서 어떤 세계가 열린 것 같아요. 도심이지만 지붕에 고양이도 찾아오고 새도 오고 족제비도 와요. 굉장히 자연에 열려있다는 인상이 강해요. 노란 고양이 금동이와 저희 집 지붕에서 태어난 친구예요.

마당-옥상정원-지붕-
하늘로 이어지는 자연에
열린 공간.

이곳에서 태어난
고양이 금동이는
부부와 한 식구가 되었다.



한옥은 외부 세계와 맞닿아있고 열려있는 편이라 내가 열고 싶은 만큼 여단을 수 있고 주변 이웃과도 소통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파트나 신식 주거공간은 폐쇄성이 강점으로 어필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 현대 건축 기술이 더위와 추위를 막고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 반면 저희는 저

희 나뭇대로 그 자연의 온도에 반응하고 견대내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계절에 온전히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가장 좋아 하는 때와 공간

6월 초와 10월 초, 절기로 따지면 소만과 백로 정도

6월 초와 10월 초, 절기로 따지면 소만과 백로 정도. 그때가
옥상정원이 가장 예쁘고 실내로 빛도 많이 들어와요. 9년째 계
속 관찰하고 있는데 그때가 빛의 각도가 가장 입체적이에요.
저는 여기 부엌 자리를 좋아하는데. 여기 있으면 오후에 직사
광선이 딱 짝요. 그러면 되게 아름답고 좋아요.



◎김진호

옥상정원으로 가는
출입문을 통해 집안
깊숙이 들어오는 햇빛

방전된 에너지를 채우는 빨간 소파

빨간 소파가 있는 저 자리도 좋아하는데요. 가장 빛이 잘 드는 자리이기도 하고. 밖에 나갔다가 와서 힘들잖아요. 방전된 에너지를 채우는 공간이죠. 저희 집 고양이가 세 마리인데요. 저기 누워있으면 하나, 둘, 셋, 배 위로 올라와요.

따사로운 햇빛이 잘 들어
고양이들도 좋아하는
소파 공간



주방에서 3초 거리, 저희 집 옥상정원

원룸 생활을 할 때는 식물을 가꾸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 이사를 와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설프게 식물도 많이 죽이고 그랬죠. 그러다 이제는 어느덧 10년째잖아요. 재작년부터는 정원이 자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올해는 돈을 하나도 안 들였는데 이 정도예요. 뭘 심거나 하지 않아도 한해살이 식물들이 씨앗을 맺으면서 겨울에 얼어있다가, 봄이 되면 스스로 싹을 틔워주네요. 저는 주로 허브 종류를 많이 키우면서 요리에 활용하고 있어요.

구조도 특이하죠. 다른 한옥은 보통 실외 계단으로 옥상에 올라가는데 여기는 실내에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리하다가 중간에 쓱 올라가 허브를 뜯어오는 게 편해요. 만약 신발 신고 마당에 나가서 올라가야 했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보살피지 못했을 거예요.

◎김진호

옥상정원을 구경하는
금둥이와 꼬망이



◎김진호

싱그러운 옥상정원의
모습,
서촌의 기와지붕 풍경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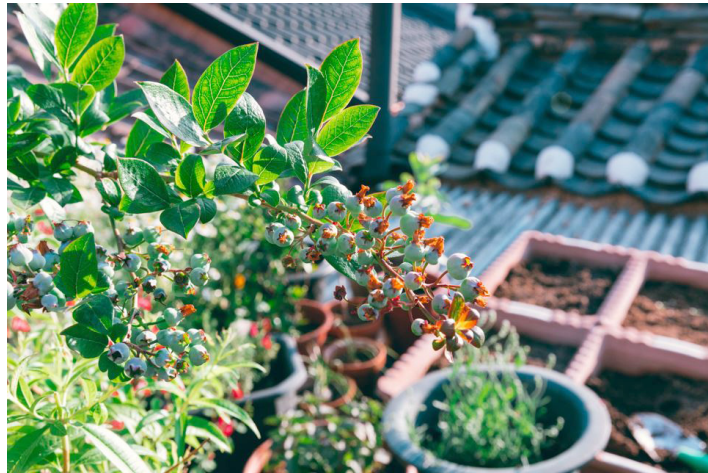
◎김진호

옥상정원에서 수확하는
각종 채소



◎김진호

옥상정원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블루베리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천천히 고쳐나가면 꿈꾸던 집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일단 한번 살아보시고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으면 해봐야죠. 생각해보면 현대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집에 대한 애착도 덜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역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어요. 외부활동을 많이 하니까 집에서 쉬기만 하면 됐죠. 그런데 이제는 휴식뿐만 아니라 양질의 충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컨대 자기 몸에 편안한 옷이 무엇인지 대략 알잖아요. 어떤 건 부담스럽다, 어떤 건 내게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입어봐야 알고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내게 좋은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 간다는 생각으로 해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또 자신에게 맞게 편안하게 공간을 맞출 수 있다면 그 곳에서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방에서 옥상으로, 마당으로, 골목으로 세계를 넓히는 거죠. 그런 순간을 찾아가면서 함께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집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상상하는 것과는 분명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고풍스럽고 미니멀한 한옥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런 로망만을 가진 채로 맞닥뜨렸을 때. 사실 그렇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래되기도 하고 내 스타일과는 다른 식으로 리모델링되어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들어와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꿈꾸던 집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진호

부부와 통인동 한옥은
함께 성장했다.

“미래계획이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거죠.”

저희는 미래계획이 딱히 없어요. 아무래도 전세로 살고 있다보니,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가장 소중히 생각해요. 사는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나중에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직접 짓고 싶어요. 그게 꼭 한옥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옥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미래를 상상해봅니다.

03

시간의 흔적이 깃든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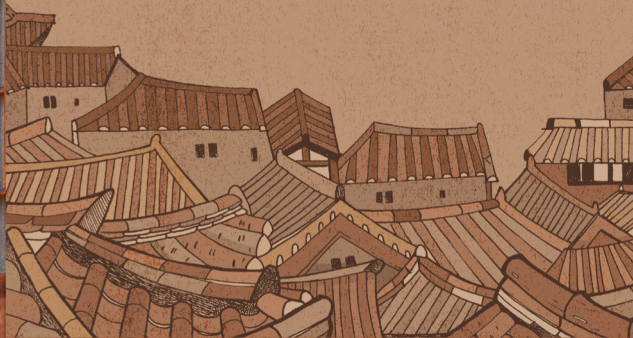
천연동 한옥







천연동 한옥



위치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공사유형	대수선
설계	구가도시건축
입주시기	2016년
층수	지상 1층, 지하 1층
가족구성	부부와 세 명의 자녀, 강아지 한 마리

한옥과의 만남

안녕하세요. 천연동 한옥에 사는 박종서, 김혜정입니다. 박규은, 박규민, 박규희 세 딸아이와 강아지 이월이까지 여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1939년에 지어진 한옥이에요. 처음 이 집을 지으신 분이 여기서 90세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한옥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집이었고 저희가 아주 운 좋게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과 타이밍이 맞았던 집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아파트나 빌라에 살았는데 이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고향 집에 대한 정취가 늘 기억에 남아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고향도 없고 똑같이 생긴 공간만 떠올릴 것을 생각하니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해가 지는지 뜨는지 몸으로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주택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종로구, 서대문구 위주로 단독주택을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살기에 너무 크거나 너무 외딴곳에 있었어요. 그 와중에 한옥을 단독주택 개념으로 보니까 만들새도 좋고 보기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어릴적 이 근방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안산에 올라 여기저기를 살펴보니 지금 이 집이 내려다보이더라고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사람이 못사는 집이라고 했었어요. 폐가이기 때문에 허물고 새로 지어야지 지금 살기에는 너무 오래된 집이라고요. 구경만 좀 해보자 해서 들어와 봤더니 햇살이 앞마당에 비치면서 창문과 문들이 반짝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집이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 집을 봤는데 우리가 마음에 들면 집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고, 팔겠다고 하는 건 우리 맘에 안 들고 그랬어요. 이 집은 저희와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guga

매입 당시 천연동 한옥
문간채의 모습.
유리창으로 내리쬐는
햇빛이 아름다웠다.

©guga

매입 당시 천연동 한옥
마당의 모습



이 집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드님이 부동산에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마음에 들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한옥을 보는 눈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요. 전문가에게 이 집을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참에 구가도시건축의 조정구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한번 봐주시겠냐고 물었더니 기꺼이 오셨어요. 둘러보시고는 “어떻게 이런 집을 찾았냐”고 하시길래 두말 않고 결정을 했네요. 이제 한옥살이를 한 지 꽤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 집 서까래나 보의 모습이 흔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덧붙이자면 전 집주인 부모님께서 세 아들에게 주려고 이 근방에 한옥 세 채를 비슷하게 지으셨대요. 첫째 네는 저희 집 건너편에 담장으로 둘러싸인 집이고, 둘째 네가 저희 집, 셋째 네는 헐렸어요. 이 집이 가장 빛나게 살아남았다고 할까요?

©guga

거실로 쓰였던 마루는
지금 보아도 튼튼해
보이는 보가 눈에 띄고
아자창(亞字窓)으로
짜여진 곱보유리,
서리유리 창호가
아름답다.



©guga

실제로 아궁이를
사용하던 부엌은 타일로
미장 되어있었다.
부엌에서는 지하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guga

다락은 곱솔이나 가마솥,
안쓰는 반상 따위를
보관하던 창고로
사용했었다고 한다.
네 짝 찢리 미세기
문 아래는 온돌
아랫목이었는지 새카맣게
타다.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잇든 집

“저희가 전 집주인의 흔적을 만졌듯이
‘이 집도 다음 세대와 겹쳐지겠다, 물려주는 것이겠다’
이런 상상을 해요.”

그릇이랑 장이랑. 부엌에 걸린 패종시계도 전 집주인이 쓰시던 거예요. 해방 전 시계래요. 전 집주인 분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쓸 만한 거 있으면 챙겨라”라고 하셔서 몇 가지를 가졌어요. 그런 느낌 아세요? 저희 집이지만 저희 집인 것 같지 않은. 저희가 전 집주인의 흔적을 만졌듯이 이 집도 다음 세대와 겹쳐지겠다, 물려주는 것이겠다 그런 상상을 해요. 문득 ‘이 집에 살던 할머니도 그런 느낌이었을까?’ 생각도 들고요. ‘아이고, 감나무 때문에 귀찮다’ 싶다가도 ‘어머, 할머니 들으셨나?’ 속으로 그래요. 친구들은 무섭게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여하튼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내가 오기 이전의 시간이 함께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오래 살아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또 ‘이 집이 다음 집주인을 만날 때 좋은 소리를 듣도록 아껴 살아야지’ 하고요.



©guga

전 집주인 할머니가 두고
가신 세간살이

준규네 가족의 한옥 입주

“집에 대한 추억을 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2014년도에 이 집을 매매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2015년에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산 지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첫째가 15살, 둘째가 13살, 막내가 10살 때 이사를 왔어요. 처음 이 집에 함께 온 날엔 할머니 짐들이 방치된 모습 그 대로라서 귀신 나온다 해도 믿을 만큼 무시무시했어요. 애들이 싫어했어요.

막내딸 규희:

“그때는 ‘여기서 살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엔 설계과정에서 3D 모델링을 자주 본지라 완공 후에도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지만, 목재 건물이어서 이전 집들과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원래 남편은 단독주택, 저는 한옥을 마음에 품고 있긴 했었지만, 아이들에게 집에 대한 추억을 줄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사는 그 순간에만 ‘집’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살던 곳이 지금 꾸는 꿈에도 나오곤 하니까요. 한 공간의 이미지가 체화되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고향’의 개념이 없어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집에 대한 기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옥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선 ‘손 많이 가고 고생인데 뭐 하러 그러냐’고 하는데, 저희는 ‘맞는 말이다’ 하면서도 청개구리처럼 일을 벌였죠. 사실 남편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농가 주택에서 살았대요. 어렴풋이 나는 기억으로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서 불편했었고 계절마다 어른들이 집을 수선하는 모습도 떠올랐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옥에 살고 싶다고 하니까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랬죠.



©박종서

가족들에게 집이
체화되어가는 모습

©박종서

한옥 디딤돌을 베고
쪽마루에 누워있는
아이들이다.



저희 집이 되기까지

대수선 의뢰하기

워낙 집이 오래되어 대수선 수준의 공사를 해야 했어요. 처음 집을 볼 때 도와주셨던 구가도시건축에 설계를 의뢰했고 집을 고쳤죠. 이왕 설계하는 김에 우리 가족의 조건에 맞춰달라고 했어요. 남편 키가 180cm이 넘다 보니 처음에 마루 안팎을 오갈 때마다 몇 번이나 머리를 부딪쳤어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싶어 ‘바닥 높이를 낮춰주십시오’ 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낮아졌어요. 덕분에 환해지고 개방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가급적 원형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어색한 퓨전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마당을 유리로 덮어 거실을 만들자는 의견에 고민했던 게 사실이에요. 마당에 내리는 눈과 비를 보고 싶어서 한옥에 살고 싶었던 거니까 말이에요. ‘그걸 네가 안 꺾어서 그렇다’라는 남편의 말에 수긍하여 결정을 내렸어요.

마당에 아트리움을 두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현대 주거공간의 거실 역할이 사실은 한옥에서 마당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천장을 덮는 게 마당이 거실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잘 결정한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실내가 훨씬 북적였겠죠.

아트리움으로 뒀인
마당의 모습



아트리움 밖 마당의 모습



©박종서

거실의 역할을 하는
아트리움



아트리움에서 보이는 감나무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전 집주인 할아버님이 초등학교일 때 어머니께서 심은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80세 정도 되셨으니까 이 나무도 한 7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감나무가 단풍 드는 모습도 정말

이빠요. 그래서 이사 오고 첫해에 아트리움 천장에 낙엽이 쌓이는 모습이 그렇게 좋았어요. 낙엽을 밑에서 볼 일이 전혀 없잖아요. 마치 두더지가 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감이 못생겼어도 정말 달아요. 저희 모두 귀하게 먹고 있어요.



©박종서

아트리움에서
올려다보이는 감나무의
모습

여섯 식구의 한옥 적응기

“어떤 문을 열고 닫느냐에 따라
공간 레이아웃을 달리하는 재미도 있죠.”

저희 가족이 여섯 식구잖아요. 저희 부부와 딸아이 셋, 그리고 이월이(강아지)까지요. 여섯이 살기에 좁다고 하면 좁을 수도 있겠지만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한옥은 ‘칸’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미닫이문을 닫으면 한 칸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몰입도가 커요. 그래서 책 읽을 때나 공부할 때 좋아요. 일반 문이랑 다르게 창호지 문은 답답함도 덜하고요. 어떤 문을 여닫느냐에 따라 공간 레이아웃을 달리하는 재미도 있죠. 살림하다 보면 제 감냥에 이 집도 크다고 생각해요.

흔히들 쓰는 책상이나 소파 같은 가구는 없지만 하나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19로 요즘은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막내 규희가 문간방을 쓰고 있네요. 시험공부를 할 때도 문간방에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집중이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오거든요. 그러면 주로 저기 문간방에 들어가서 놀아요. 좁아서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데도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앉더라고요. 재잘거리는 이야기 소리도 들리고 가끔은 노래도 부르는데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문간방에서 재택강의를 듣고 있는 규희



©guga

매입 당시 문간방의 모습



©guga

대수선 후 문간방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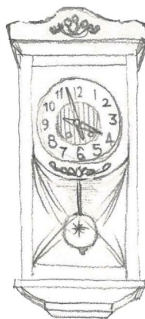
저희는 침실만 정하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공유해요. 자는 방은 부부 침실이 있고, 지금 고2인 둘째가 다락방에서 자고, 첫째랑 막내는 저쪽 방에 2층 침대를 함께 써요. 입시생은 예민하기 마련이잖아요.

또 저희 집은 특이하게 부분적으로 2층이잖아요. 장독대 밑으로 지하 서재가 있고 부엌 쪽으로는 반지하 공간이, 거실 밑에는 방공호처럼 마른 짐을 둘 수 있는 지하창고도 있고요. 그래서 개별 공간이 좁더라도 크게 부족함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하 서재에 혼자 들어앉아 차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구경 온 사람들은 ‘어머 좁네’ 하고 지나 가버리는데 개인적으로 아쉽죠. 머무르면서 느끼면 감상도 배가 되는 곳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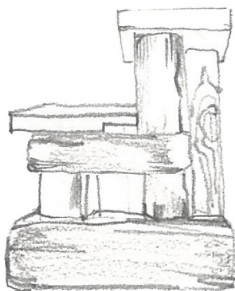
천연동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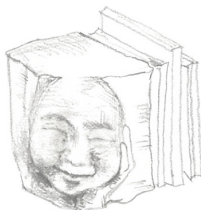
남편의 솜씨, 방파 촛대



집안의 유물, 세이코 사 벽시계



집안의 고재로 만든 디람목



아이들과 엄마의 솜씨,
테라코타 도서거치대

셋째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
새겨진 곰보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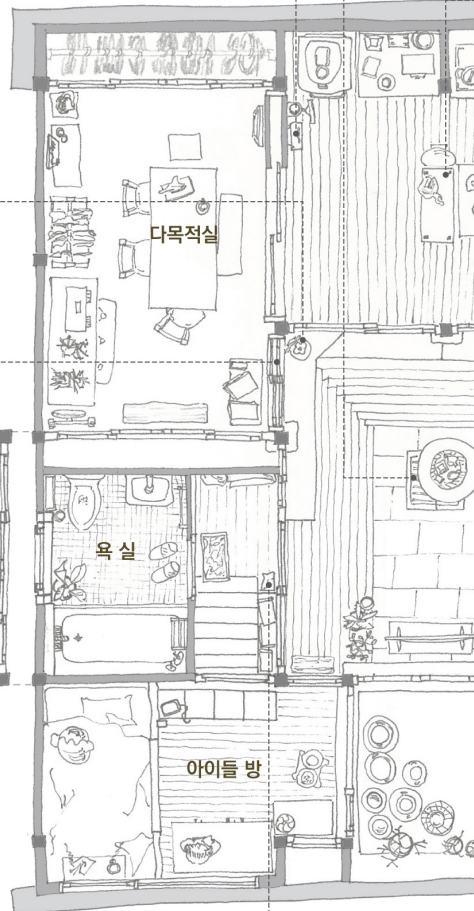
다락

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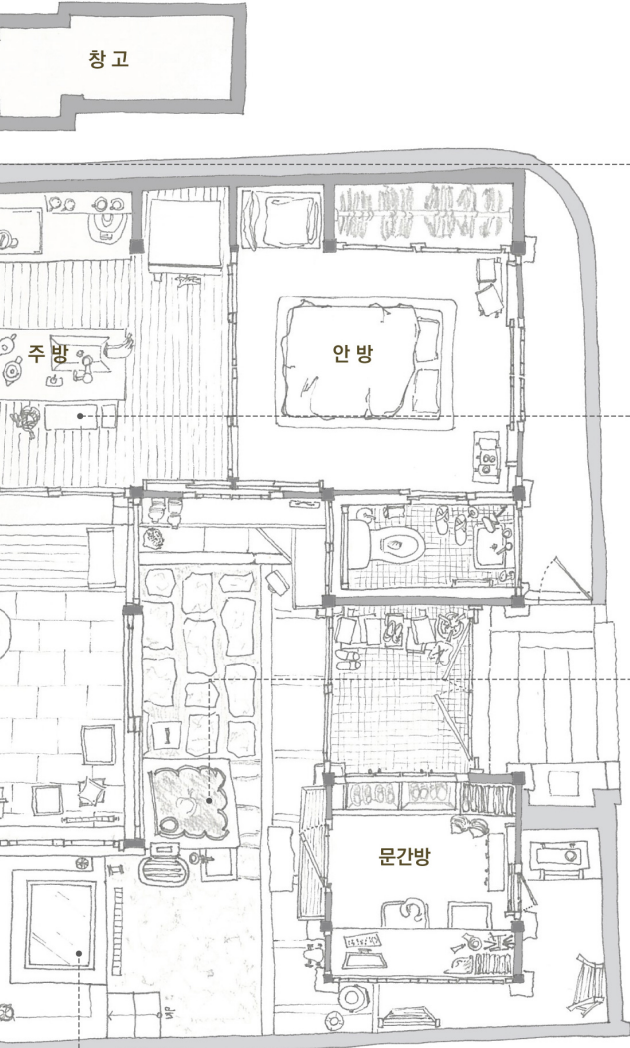
다목적실

아이들 방

비밀 창고



서재



창고

주방

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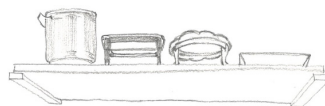
문간방

지하 서재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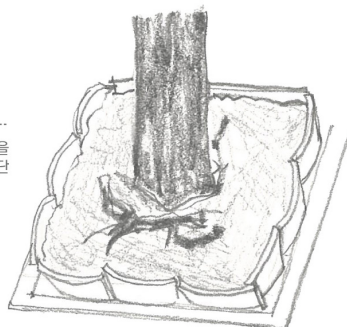
아내의 로망, 그릇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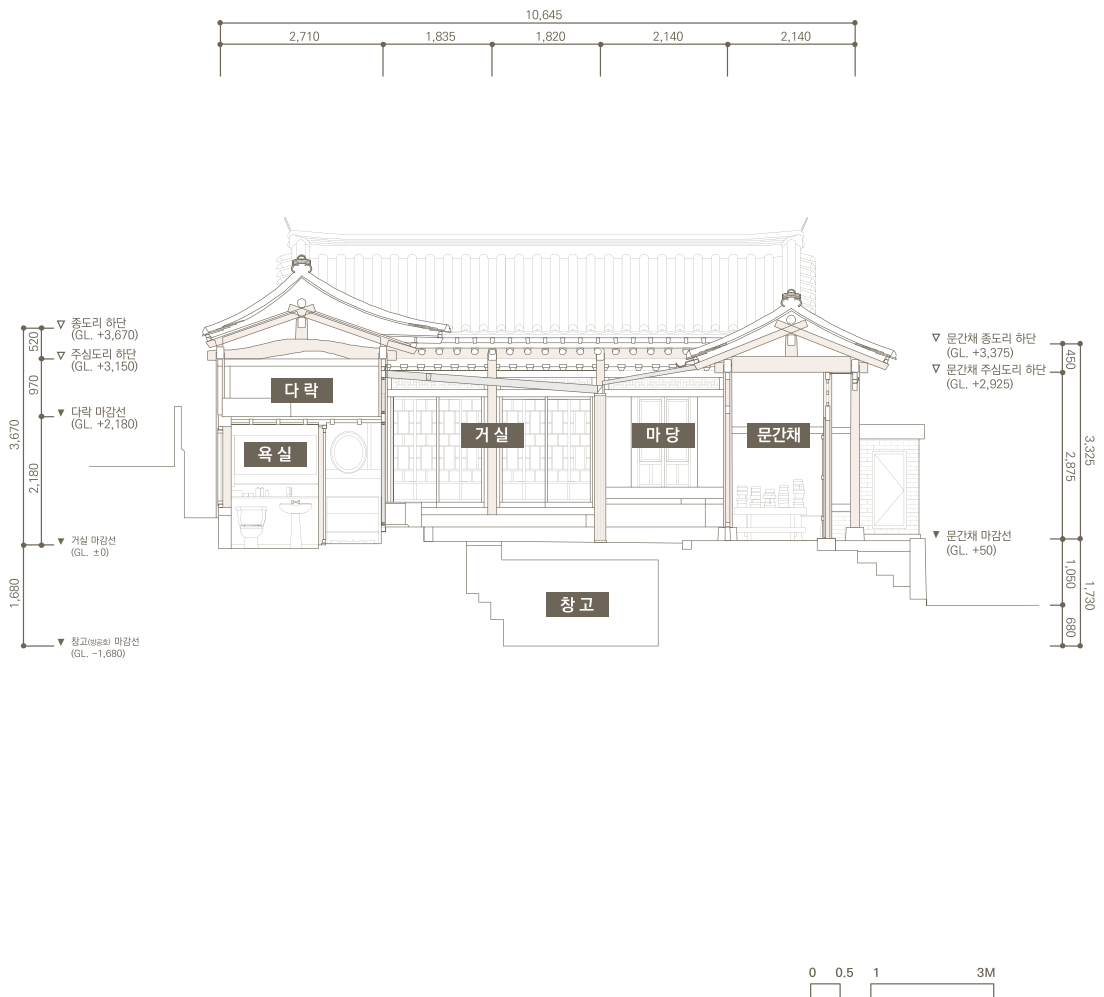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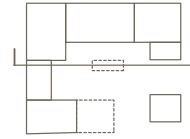
시렁에 소반을 보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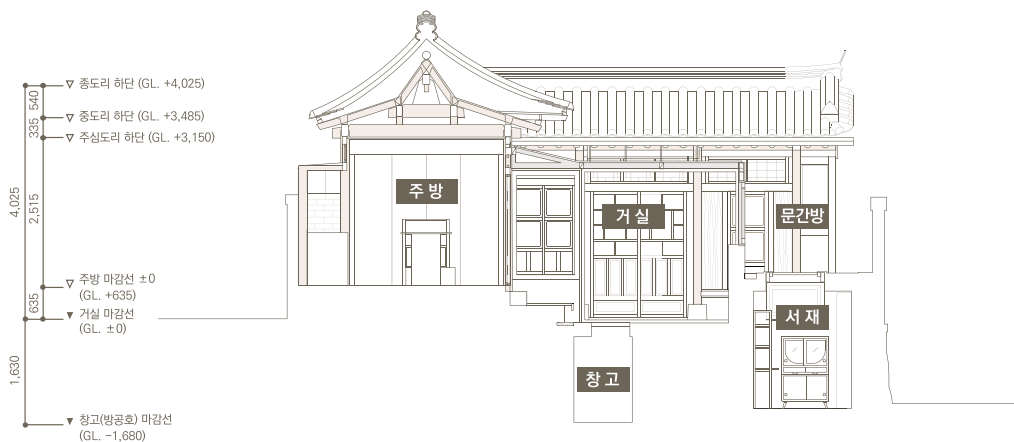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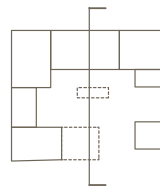
넘치는 흙을
기와로 막은 화단



천연동 한옥 횡단면도



천연동 한옥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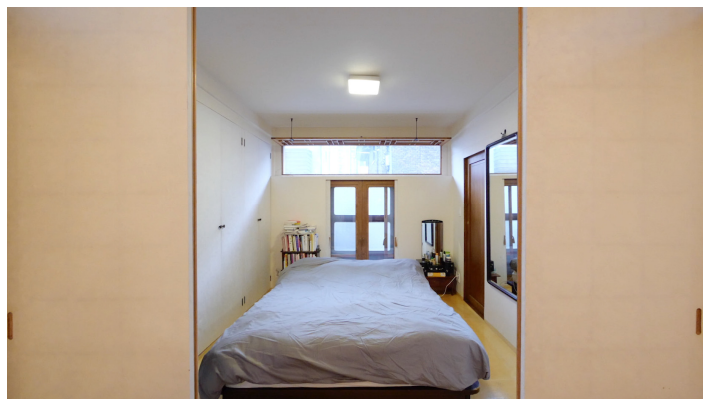
©guga

대수선 전 천연동 한옥 내부



본래 안방과 거실로 쓰이던 공간을 미닫이 문으로 활짝 열어 주방과 거실을 겸하는 용도로 확장했다. 다락 쪽 창을 기존의 마루 창과 구성을 같이 하여 채광을 좋게 했고, 덧문을 대어 단열을 높였다. 창 위치는 그대로이나, 마루 창호의 무늬와 같이 아자창으로 짜 넣어 공간이 더욱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변화했다.

하얀 창호지 미세기문을
열면, 부부의 침실이
나온다. 벽면 상단부 긴
장방형 창은 들창으로
두어 햇빛이 잘
들어오면서도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



목재로 2층 침대를 짜
아이 둘의 침실로 쓰고
있다. 해가 가장 잘 드는
방이다.



창고로 쓰이던 다락방은
서까래가 가까이 보이는
침실로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첫째
아이가, 올해부터는
입시생 둘째 아이가 쓰고
있다. 천정이 툇려 있어,
2층 침대를 쓰는
자매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한옥살이의 불편한 점?

한옥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전반적인 것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불편한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인 것 같아요. 문이 조금 무겁다는 거? 그리고 저희 집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단차가 여러 단 있으니 나이가 들면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도시 한옥의 배수는 예전 집과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도시 한옥의 배수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곤 해요. 현재는 법적으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비를 모두 이 집 안 단수 관과 우수관을 통해 배출해야 한대요. 그런데 저희 집 감나무나 옆집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기와 홈통이 막히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아파트나 도로를 면하고 있는 집이라면 다른 곳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도시 한옥은 집 자체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 즈음이면 물이 넘쳐서 마당이나 지하로 흘러내리기도 해요. 배수에 대한 해결책이 예전 집과는 분명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한옥 주택 관리하기

배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무래도 한옥은 물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닥으로부터 1m 정도 부분은 비를 계속 맞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새로 칠해줘요. 그리고 감나무에서 떨어진 이파리에 흙통이 막히지 않게 2~3달에 한 번꼴로 흙통 청소와 아트리움 청소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부분은 살면서 조금 더 챙기면 되는 거니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 외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누가 온다고 하면 부리나케 청소하는 정도. 집에 얹혀살고 있지, 모시면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한옥이라 하면 흔히들 냉난방비가 많이 들 거로 생각하는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아요. 단열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은 편이고, 오히려 신선한 공기가 항상 흐르고 있으니 꽤적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옥은 살다가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섬세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문가들의 일정에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챙겨야 하니 공사 기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일반 주택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공사를 다 더하고 나눠보면 아파트보다 관리비용보다 더 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파트처럼 매달 기본적으로 나가는 관리비가 얼마 없으니까요.

사실 저희가 요즘 고생하고 있는 문제는 흰개미 때문이에요. 흰개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 약만 뿌렸어요. 이듬해에 방을 닦던 중 또다시 발견했죠. 보일 때마다 약을 뿌리지만 소용없어요. 돈도 많이 들고요. 방재업체에 물어보니 목재를 촘촘히 심어서 유인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것도 목재 한 개에 6만 원, 전문가가 한 달에 한 번 모니터링 오는 비용 120만 원이래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었더니 문화재급에 맞춰져 보수가 책정되어 있대요. 저희는 거의 3년에 한 번씩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큰딸에게 그랬어요. “흰개미에게 돈을 쓰다 보니 네게 들어갈 돈이 없단다”하고요.

표면적으로 방지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더라고요. 문화재 영역에서는 흰개미가 살기 어려운 환경, 즉 난방이나 단열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데 거주하는 집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저희도 엄청 자료를 찾아봤어요. 외국에는 방재 사례가 있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목재값이 싸서 그런지 몽땅 태워버린대요.

지원 정책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은 서울 우수한옥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흰개미 피해에 대한 지원이 1년에 한 번 방재약을 주는 것 빼고는 전혀 없더라고요. 실제로 집을 무너뜨릴 심각한 위협인데도 말이죠. 흰개미는 땅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희 집만 방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한옥에 사는 게 너무도 좋지만 딱 하나 불편한 점을 꼽아보자면, 흰개미를 꼽을 것 같아요. 문득문득 ‘옛날 길 왜 지켜서 원형을 그대로 한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흰개미는 흰개미목 (Isoptera)에 속하는 곤충으로 주로 목재를 영양원으로 삼는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흰개미는 축축한 땅속이나 나무 속에 통로를 만들어 이동하는데,

한옥에 한 번 동지를 틀면 한옥의 기둥 아래부터 나중에는 도리, 서까래까지 갉아 먹기도 한다.

나무 안부터 갉아 먹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될 때는 이미 상당 부분 피해가 진행된 경우로 흰개미 예방 및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집의 매력

자연을 한껏 만끽하는 집

“다시 아파트에서 살라고 하면 못 살겠어요.
공기가 순환되는 게 좋아요.”

한개미랑 싸우면서도 다시 아파트에 살라고 하면 못살 것 같아요. 한옥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때’를 알고 사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거든요. 아파트에 살 때는 지금이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에선 절대 그렇지 않죠. 눈이나 비, 바람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요.

한옥은 사계절이 다 달라요. 다락방 창으로 장독대에 눈 쌓이는 모습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저는 겨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춥냐고요? 물론 단열을 잘 하긴 했지만, 춥긴 춥죠. 그래도 못 견딜 만큼은 아니에요. 겨울에 아파트에서 반팔, 반바지를 입었다면 이 집에선 긴팔, 긴바지, 두툼한 양말을 신는 정도예요. 건축가분들이 ‘옷풍 있는 집이 좋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말을 이해했어요. 여기 이사 온 후로 아파트에 가면 밀폐된 공기가 느껴져요. 아이들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래요.

여름에는 문을 요리조리 닫아가며 효율적으로 냉방을 하는 편이에요. 저 안쪽의 화장실 창이랑 거실 창이랑 열어두면 맛바람이 불어서 아주 시원하거든요.

가을에는 새들이 저희 집 감나무에 날아 들어와 감을 쪼아먹고는 해요. 낙엽을 치울 때는 귀찮기는 하지만 감나무 단풍이 그렇게 또 아름다워요.



©guga

매입 당시 천연동 한옥의
감나무 단풍

애착공간이 있다면?

“아 우리 집 예쁘다. 행복하다.”

저희 부부는 마당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앉아 하늘도 보고 조명 들어오면서 창호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는 것도 좋아요. 가족들과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고요. 한때는 여기 마당에 식탁을 뒀었어요. 아이들이 게을러서 밖에 잘 안 나가는데, 마당에 식탁을 두니까 밥 먹으면서 햇볕도 쬔고, 달빛 아래서 저녁도 먹으면서 자연스레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니 참 좋더라고요.

이 집을 사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마루에서 바라보는 창호 면이 정말 좋았어요. 원형의 모습을 대단히 잘 유지하고 있고요. 창에 끼워진 곱보유리와 서리유리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저녁에 조명을 켜면 마치 보석처럼 빛나요. 제가 사실 다 쓰러져가는 한옥에 살던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대청마루에서 술한 잔 얻어 마시고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 집에 비하면 저희 아트리움은 상당히 우아한 편이죠. 또 집안에 햇볕 들어오는 모습이 말할 수 없이 이뻐요. 잠깐 낮에 줄다가 깨도 ‘아 우리 집 예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유리를 끼워 넣은 창호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30년대 일본 유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둥 사이 공간을 유리 창호 면으로 메꾸어 실내이자 실외의 전이 공간으로 쓰이던 대청마루를 완벽한 실내공간으로 만드는 변화를 끌어냈다.



지하 서재도 좋아요. 넓지 않기 때문에 집중이 아주 잘 되는 공간이에요. 천장 위로 뚫려 있어서 하늘이 보이는 지하의 그 좁은 공간에 앉아 있을 때, 오로지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 좁은 집에도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이죠.



©박종서

지하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실 때면 행복감도 배가
된다.

나를
지키고
나를
느끼게
하는 집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때’를 알고 사는 것의 소중함을 느껴요.”

“지금의 집은 나를 지키고 나를 느끼게 하는 공간이에요.”

한옥이기에 또는 아파트이기에 생기는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워낙 빠른 속도로 컸으니까. 다만, 부모로써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아파트 집들처럼 방문닫고 뭔가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뭐라도 하려면 바깥으로 나와야 하니까요. 나오면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세 아이 모두 딸이어서 워낙 말이 많기도 한데 이 집이 묶어주는 무언가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음식을 시켜 먹어도 다 거실에 모이고. 하다못해 남편이랑 저랑 침실에서 쉬고 있으면 딸 셋, 거기다 이월이(강아지)까지 매번 모여 들어요.

저희 집을 보시면, 보통 아파트처럼 거실에 소파가 없잖아요. 사실 집이라고 하는 곳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들어와서 몸을 던져버리는 소파가 있고 하루 온종일 거기서 뒹굴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희 집은 안방 침대로 다 모여들어요. 좁아서 다 누울까 싶지만, 기가 막히게 한 침대에 다 누워요. 안방 침대에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비키라면서 몸싸움을 벌이면서도 참 재미있구나! 생각하죠.

©박종서

안방 침대 하나에 모여든
사람 셋, 강아지 한 마리



아이들 말로는 “집에 가고 싶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대요. 큰 애는 특히 집에 있고 싶어하고요. 그건 사실 집이 본인에게 꽤 적하고 편하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집의 중요한 기능이죠.

코로나 19 때문이라도 아파트에 있었으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부대끼면서도 나쁘지 않다고 느껴요. 뭐랄까. 집은 저의 껍질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껍질은 건강하고 좋은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고요. 과거에는 모든 일의 초점이 바깥 활동에 맞춰져 있어 집은 잠깐 쉬는 공간 정도였는데, 지금은 나를 지키고 나를 느끼게 하는 공간이에요.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숫자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니까요.”

남편은 원래 IT업계의 프로젝트 관리자였어요. 획일화된 삶을 바꾸고 싶고 숫자로 평가받는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죠. 현재는 전통 목가구를 제작하는 소목장 이수자예요. 어찌면 한옥에 살게 된 계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옥은 어디 단지가 더 비싸고 누구네가 어디에 산다는 등 숫자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 시기가 남편이 다른 풍경을 보는 전환점을 만든 것 같아요. 전통 목가구를 만들면서 일의 처음부터 끝을 다 할 수 있음에 즐거워하더라고요. 이 사방탁자도 남편이 만들었어요. 자기만의 색깔을 입혀서 만드는 맞춤 가구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옥은 아파트와 같이 큰 ‘면’이 없어요. 모두 창과 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거울을 놓을 공간조차도 한참을 생각해야 떠오를 정도로요. 한옥의 창과 문은 손으로 아기자기하게 짜여서 전체 구성을 이루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득 차있다 한들 나무로 되어있어서 눈에 거슬리지 않고, 언뜻 보기에는 한 몸처럼 보이죠. 구석구석 살펴보면 다 조각조각 나뉘져 있는 것인 데도요. 한옥과 전통 목가구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구조가 모여서 전체 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무엇 하나 도드라지거나 과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남편이 만드는 가구와 이 집이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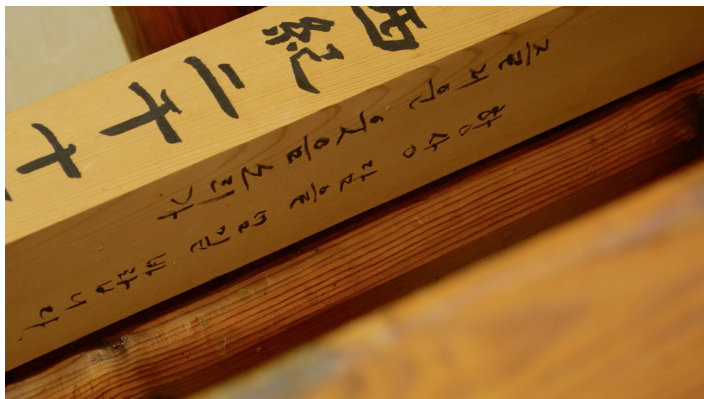
거주자가 직접 제작한
전통 목가구

남편은 파주에 공방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
오십 살이 되거든요. 이후의 삶은 파주에서 또 다르게 살지 않
을까 생각해요. 그렇다고 당장 이사 갈 생각은 아니에요. 막내
가 중학교 2학년생이니 계속 살아야 해요. 근데 의외로 아이들
이 욕심을 내더라고요. 자기가 살겠다고. 그러면 ‘돈을 내놓거
라’ 그랬죠.

“이 집에서 울리는 웃음소리가 항상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들렸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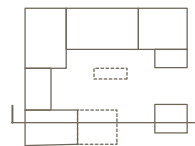
이 집의 상량문을 적을 때 저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항상 담을 넘길 바랍니다.”라고 적었어요. 지금까지는 상량문에 적은 글귀처럼 잘 살아온 것 같네요. 저희 식구들은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한옥에 살고 싶다면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파트가 안전하고 편리하지만, 막상 한옥에 살아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비교 기준이 없어서일 뿐인데, 이곳에 오면 훨씬 윤택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민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한옥으로 이사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량문에 적힌 문구
“즐거운 웃음소리가 항상
담을 넘길 바랍니다.”

천연동 한옥 단면투시도



04

한옥건축가의 집
서대문 한옥





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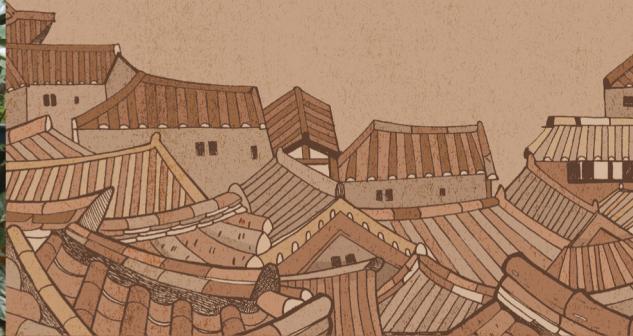
坤光大財方金号

泰

Swim Ring



서대문 한옥



위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공사유형	대수선
설계	구가도시건축
입주시기	2003년
층수	지상 1층
가족구성	부부와 네 명의 자녀, 강아지 두 마리

한옥과의 만남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 그리고 자녀 4명이 함께 사는 서대문 한옥입니다. 첫째 아이가 20살, 그 밑으로 18살, 15살, 13살이에요. 반려견 제일이랑 까미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윤정미

조정구 소장 댁 가족사진.
사진 속 강아지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두기'이다.

어느덧 한옥살이 18년

아파트에 살다가 2003년에 이사 왔어요. 저희 첫째가 3살 때 인데 ‘아이가 마당 있는 집에서 뛰어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당 있는 집을 찾았어요. 일부러 한옥을 찾은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독립문 부근에 살고 있었고 북촌, 서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침 집사람이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하는 말이 “좋은 집이 나왔다. 지하철역과 가깝고 상태도 좋다. 그런데 한옥이다.”였죠. 저희가 직접 와서 보니까 참 괜찮았어요. 다음날 이사 와서 살아도 될 정도로 수직·수평도 잘 맞고, 저도 한옥을 많이 고쳐 봐서 알거든요. 들어보니 거주하시던 집주인에게서 딸에게 줄 요량으로 집을 수리하던 와중이었는데 딸이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해서 부동산에 내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매를 하고 한 달 정도 수리한 다음 이사 왔어요.



©guga

처음 집을 마주한 날

우리 집이 되기까지

한옥 수선하기

이 집이 1958년에 지어져서 부재가 크고 공간감을 넉넉하게 가지는 집이에요. 수리하기 전에도 깨끗했구요. 다만 마음에 드는 대문과 기단석을 찾기 위해 애를 좀 썼죠. 또 원래는 마당 바닥 면과 계단이 시멘트로 마감되었던 것을 오석 포장과 새 기단석으로 바꿨어요. 훨씬 한옥과 어울리게 되었죠.

©guga

마음에 드는 대문과
기단을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guga

서대문한옥 매입
당시에는 마당 바닥면이
콘크리트로
마감되어있었고, 기단은
현대식 계단 형태로
수선되어있었다.



©guga

한옥과 어울리는 오석
포장으로 바꿨다.



집의 구조 자체는 크게 변형하지 않았어요. 2003년 입주 전 안방과 공부방을 잇는 동선을 만들고 주방 옆에 실내 화장실을 뒀어요. 그리고 창호 바꾸고 감나무 심고. 그 정도가 바뀌었죠.



©guga

주방과 분리되어 있던 벽면을 열어 공부방과 주방, 안방을 연결했다.



©guga

주방 옆에는 실내 화장실을 두어 실내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한동안 살다가 2008년에 안방 기둥이 무너져서 공사용 비계를 대고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흰개미 때문인 듯했는데 곧 정태도 대목장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때 제가 다락을 설계해서 넣었고요, 도배도 싹 다시 했죠.



©guga

대수선 중인 서대문 한옥



©guga

공사 중인 다락의 모습

가장 효율적인 공간의 쓰임을 찾아서

사실 저희 집이 넓은 집은 아니에요. 저희 부부와 네 아이들 그리고 강아지 2마리가 사는 공간이니깐요. 그럼에도 한옥은 넓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한번은 아이들 친구랑 어머니들이 놀러 왔는데 모두 합쳐서 30명 즈음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 있는지 모르게 다들 곳곳에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8명, 아이들이 15명 정도 됐는데 마당, 다락방, 주방 등등 곳곳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심지어 제가 있는 공간은 조용했어요. 한옥의 공간감 덕분에 27평 정도의 공간에 여섯 식구가 살아도 그리 답답하지 않게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루: 가족들의 여가생활 공간으로

저는 우리집 어느 구석 하나 안 좋은 데가 없는데, 하나만 꼽으라면 마루를 좋아해요. 지금은 짐들이 좀 쌓여있기는 한데요. 셋째 아이가 축구를 하고 막내 아이가 발레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요가 매트나 턱걸이 봉, 발레 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생겼어요. 주로 대청에서 운동을 많이 해요. 또 집에서 소리가 들리면 행복해진다고 해서 거실로 피아노를 옮겼는데 첫째 아이가 자주 연주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가장 특이한 공간인 것 같아요. 주말에 아이들과 마루에 모여서 영화나 넷플릭스를 볼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안방: 세 아이의 침실이자 간이 공부방으로

안방은 원래 보편적인 안방 용도였는데 남자아이들 셋의 침실로 쓰고 있어요. 늘 비어있게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침대면 적이 확 늘어나 버렸어요. 집에서 안방에만 에어컨이 있다 보니 입시수험생이던 첫째 아이가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까지 두게 되었어요. 원래는 널찍한 공간이었는데 매트릭스 두 개와 책상 하나가 차다 보니, 발 디딜 곳 없이 뻥뻥해졌네요. 폭신한 침대에서 자고 시원한 곳에서 공부하게 되니, 삶의 질은 분명 좋아졌는데 계속 무언가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답답하긴 한 것 같아요.

요즘은 주로 막내 아이가 안방 책상에서 비대면 수업을 들어요. 막내가 안방에서 공부할 시간대에는 오빠들이 학교를 가고, 잠은 저희 부부와 함께 침대방에서 자니 오빠들이랑 방을 쓰는 시간대는 겹치지 않고 있어요.

공부방: 회사 미팅공간이자 공부방으로

공부방은 남자아이 셋이 주로 공부를 해요. 둘째 아이가 기숙 학교에 다녀서 왔다 갔다 하니, 둘이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전에는 이 방에서 회사 미팅도 했었어요. 이제는 아이들 공부시간이 길어져 자연스럽게 어려워졌지만요.

침대방: 부부와 막내의 침실이자 풍경을 감상하는 갤러리로

침대방은 저희 부부와 막내 아이의 침실이자 저희 집에서 가장 넓은 방이에요. 방에서 창살 사이로 내다보이는 마당 풍경이 참 좋아요. 제가 이 집을 보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방이기도 해요. 지금 문과 창은 제가 디자인한 건데 그 전 미닫이 문일 때도 정말 예뻐요. 햇살이 창살을 지나 바닥에 맺히는 모습이 일품이었죠.

아내도 침대방을 좋아했어요. 창문 곁에 앉아서 감나무를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예뻐거든요. 마음 아프게도 감나무가 부러진 이후에는 주방 식탁에 앉아서 마당 볼 때가 좋대네요.



©guga

하얀 창호지 사이로
햇빛이 은은하게 비친다.



©guga

서대문한옥의 봄

서대문 한옥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에 설치되었던 안방 네 짝 문



워드 코로나 시대, 훌륭한 화상수업 공간



까미와 제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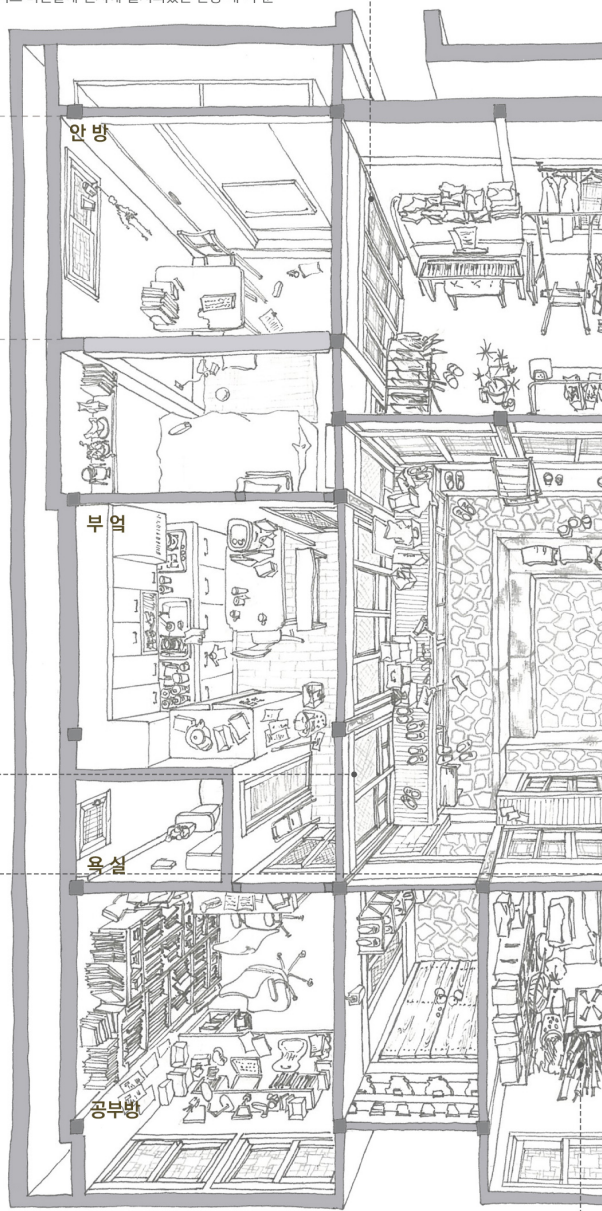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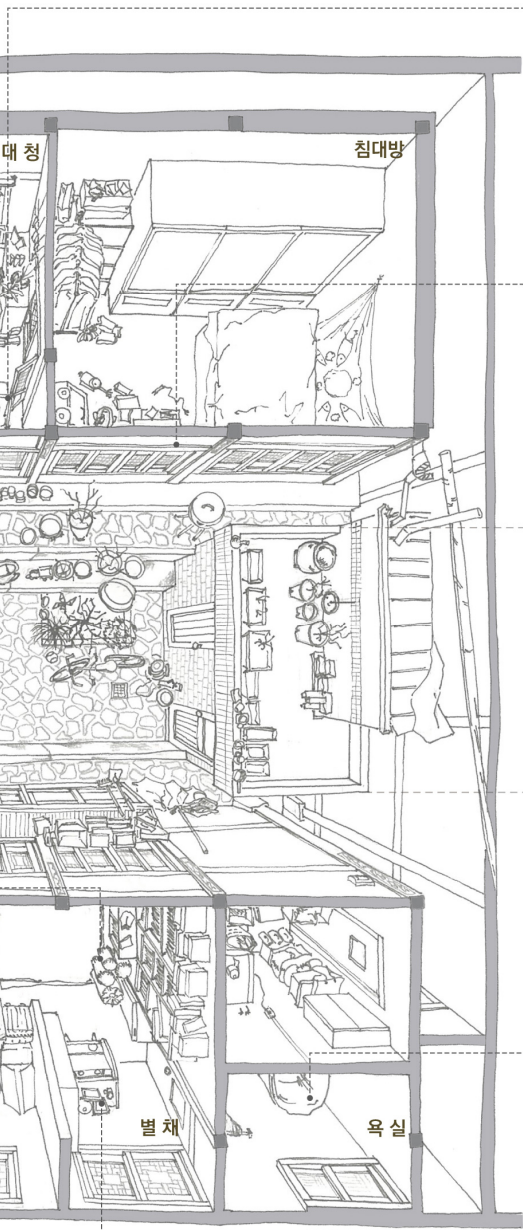
가족이 드나드는
주출입구

남우의 손님맞이용 침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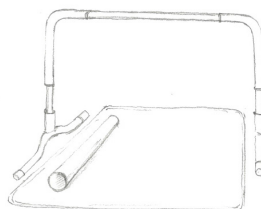


비비드한 컬러의 NURF 총들,
여기저기 숨을 수 있는 한옥집은 서바이벌 게임의 최적의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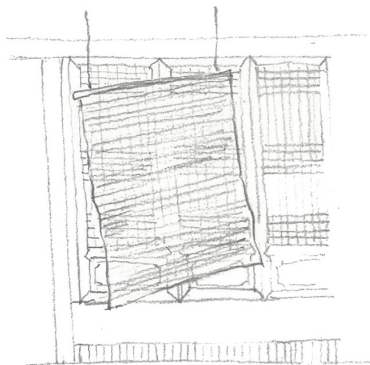




발레리나 윤후의 대청 연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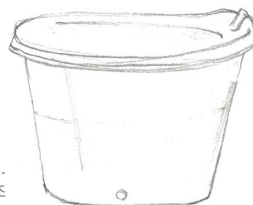
창 밖의 발 사이로
드는 빛이 가장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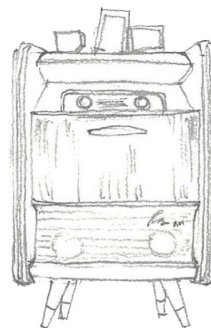
짐들의 종착역 장독대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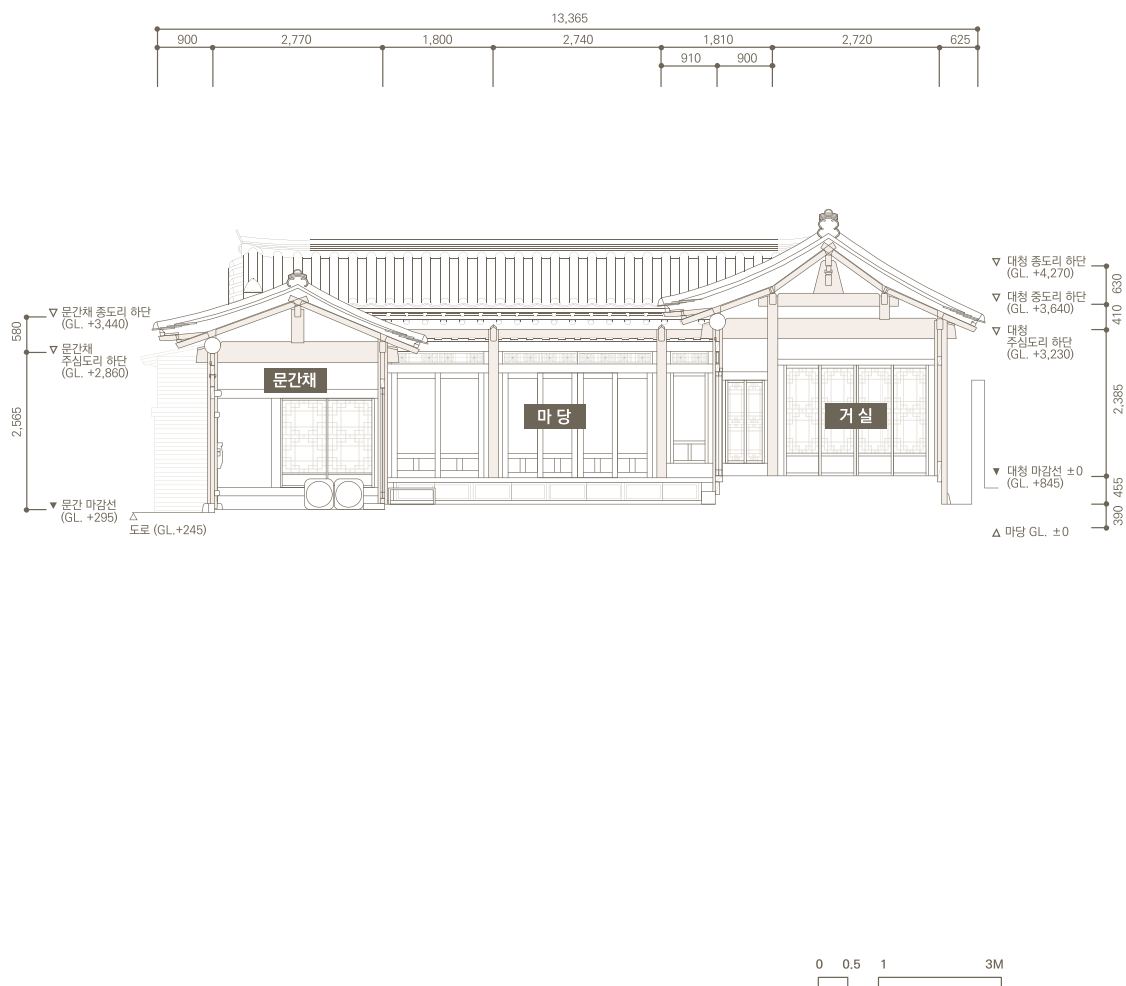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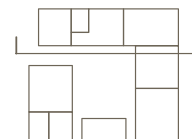
플라스틱 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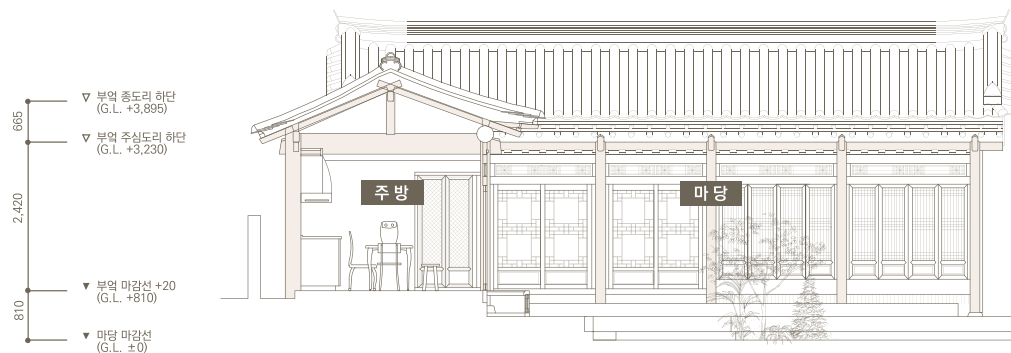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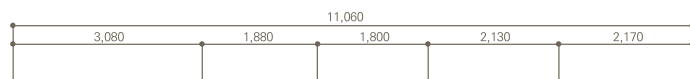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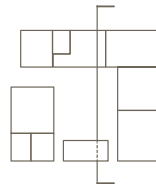
아버지의 전축



서대문 한옥 횡단면도



서대문 한옥 종단면도



별채: 우리집 보물창고이자 코로나 대비 주택으로

별채는 거의 창고로 쓰고 있어요. 욕실이 따로 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세를 주려고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별채에 달린 욕실을 세탁실로 쓰고 있고 주방에 붙어있는 욕실은 화장실 겸 욕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참, 이번에 코로나 19로 한옥 덕을 좀 봤어요.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혹시 몰라 저도 자체적으로 격리를 했거든요. 별채의 입구가 다른 방들과 구분되어 있고 마당이 있어서 집에 오래 머물러도 답답하지 않으니까 나를 자가격리를 해야 할 때도 효과적이었죠. 만약 아파트였다면 자가격리자를 위해 모든 식구가 집을 나가야 하잖아요. 여기선 욕실이 붙어있는 별채에서 지내면 되더라고요.

다락방: 비어있던 천장부분을 활용하여 우리집 연경당으로

6년 정도 이 집에 살면서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족이 늘어난 만큼 아이들 놀이방 겸 수납공간 겸해서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었죠. 2008년에 다락과 붙박이장을 설계해서 짜 넣었어요. 설계는 제가 했고 다른 작품을 하면서 인연이 있던 정태도 도편수가 짜주었죠. 새로 보를 걸고 위로 다락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창살의 간격까지 섬세하게 신경썼어요. 정태도 도편수가 주로 궁궐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 다락이 우리 집 연경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집 내부가 이래저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가장 필요해진 공간은 ‘화상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요. 다른 공간과 분리되어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다락이 최적화된 공간이더라고요. 한동안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만 머물던 다락을 깨끗이 치우고 화상수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조정구 소장이 설계하고,
정태도 도편수가 짠
다락방이다. 불박이
계단을 내리면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아내는 수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없어서 불편하대요. 모든 짐이 다 드러나 보이니까 어수선했어요. 그런데 사실 다른 것들은 다 익숙해져 버려서 불편한지 모르겠네요.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 3살 때 이 집으로 이사를 왔으니, 비교할 경험이 없어서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다더라고요.

저는 요즘 안방이 침대로 가득 차서 마음이 불편해요. 빈 공간이고 넓은 느낌이 좋았거든요. 이밖에 다른 데에는 불만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내가 공부방으로, 그리고 안방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탁실도 동선이 불편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욕실에도 전실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지관리는 딱히 힘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 나무가 있어서 낙엽을 관리하느라 흙통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정도? 그리고 기와 관리를 자주 해요. 뒤집혀 있거나 깨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고양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풍문에는 통신공사 기사님들이 집에 사람이 없으면 지붕을 밟고 지나다닌대요. 실내로 물이 새어들 수도 있으니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우리 집의 매력

생활감이 물씬 풍기는 집

“공들여서 닦고 꾸미고 미끈하게 사는 건
우리 가족과 맞지 않더라고요.
공간에서는 생활감이 중요해요.”

어느 순간 ‘잘 고쳐 써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커튼을 달아 기능을 보완하는 것처럼 낡았지만 조금씩 수선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나쁘지 않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한번은 (재)아름지기 회원분들에서 건축가 집이라고 답사를 오셨는데 좋은 말로 너무도 소탈한 모습에 아무 말씀도 안하시더라고요. 공들여서 닦고 꾸미고 미끈하게 사는 건 우리 가족과 맞지 않아요. 공간에서는 생활감이 중요해요.



©guga

본채를 구가도시건축 사무소로 사용할 당시 서대문한옥 모습(2005),
당시에 가족들은 문간채에서 생활했다.

**“도시한옥의 보편성에 존경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빛의 처리, 공간의 분할, 레벨 계획 등 사용자를
편안하게 해줘요.”**

고쳐 쓴다는 건 시간을 잇는다는 의미잖아요.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컨디션이 좋다면 그 지난 세월을 존중하고 삶을 잇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어요. 이 집에서는 건축 설계의 선명함, 공간의 쾌적함도 느껴지고 무엇보다 ‘잘해놨구나. 나는 이렇게 못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도시한옥의 보편성에 존경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빛의 처리, 공간의 분할, 레벨 계획 등 사용자를 편안하게 해줘요.



©guga

태양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한옥 곳곳을
스쳐지나간다



©guga

대청 김숙이 내리찍는
햇살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사용감을 마음 한 칸에 두고 작업을 하죠.”

집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제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사용감을 마음 한 칸에 두고 작업을 하죠. 천연동 한옥, 체부동 한옥, 계동 한옥 등등 일상을 중심에 놓고 설계를 한 집들이에요. 물론 깨끗하고 말끔한 환경을 만드는 작업도 하지만 구가도시건축은 대체로 ‘생활 한옥’이란 키워드로 공간을 풀어내고 있어요. 한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전통성에 초점을 맞춘 한옥과 현대적인 생활감을 절충하여 수용한 한옥. 그중에서 저희는 사람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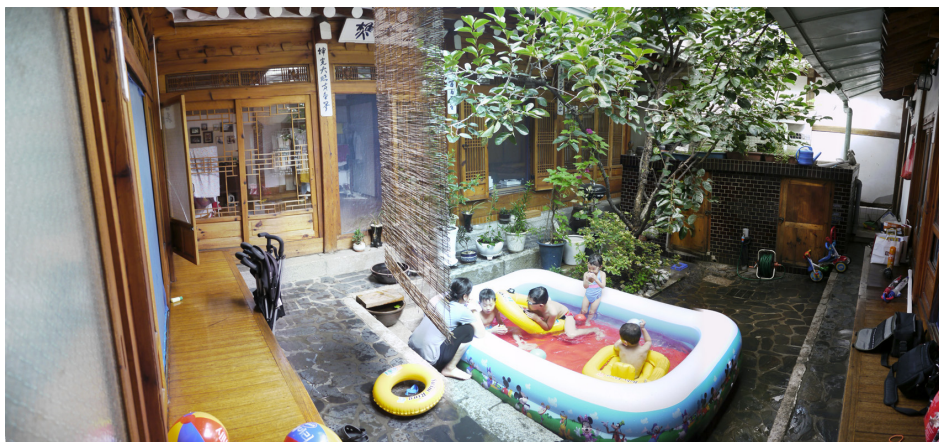


조정구 소장은
서대문 한옥 집안 곳곳의
치수를 참고하여
한옥을 설계한다.

안도 타다오가 스미요시 주택을 일컬어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런 대표작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제가 이 집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여기서 찾은 가치가 제 건축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마치 스승님을 만난 느낌이 들었어요.

변화를 수용하는 마당 집

저희 막내는 여름이 제일 좋대요. 햇볕이 비치는 집이 예쁘다
나요. 저는 대체로 다 좋은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 별이 다르
게 들어오니깐. 그래도 봄과 가을이 정말 좋죠. 문을 다 열어뒀
도 좋으니깐. 여름에는 마당에서 물놀이하기 좋아요. 무엇보다
이 집에서 마당의 감나무를 빼놓고 말할 수 없죠. 감나무 이름
이 민주인데, 이사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회사 직원이 좋은
나무라고 선물해준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즈음에 부러졌는
데 지금 회복 중이에요. 2~3년 후에 뿌리를 드러내려고 기다
렸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에 이파리가 났어요.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guga

서대문 한옥의 여름

**“사실 우리 가족이 이 집에 온 이유는
‘한옥’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당’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우리 가족이 이 집에 온 이유는 ‘한옥’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당’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남들은 단순히 ‘한옥이 좋아서 사나 보다’ 하는데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는 보편적인 도시 한옥, 더 깊이 들어가면 마당이 있는 집이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극의 마당 집이란 무엇일지, 구가도시건축이 제안할 수 있는 마당 집은 어떤 모습일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한옥에서의 삶과 아파트에서의 삶을 딱 구분해서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굳이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자연과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생하게 느낀다고 할까. 감나무가 계절을 뚜렷하게 알려줬어요. 이파리가 돋고, 커지고, 물들고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모든 걸 훌훌 털고. 그런 순환을 보는 것이 좋았어요. 철마다 뒷마루에 모여, 라면 먹고, 풀장 펴고 놀고, 등목하고 그랬으니까.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집에 마당이 있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저, 아내 순서로 한옥을 좋아해요. 둘째 아이부터 막내까지는 자기네들 인생 전체가 이곳에 있어서 그런지 여기 떠나고 싶지 않다고, 꼭 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보광동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아파트로 이사하고서 한동안 우울증 비슷한 걸 느꼈어요. ‘왜 내가 하늘에 떠서 자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느낌은 아니었고 심하게 말하면 수용소에 온 느낌이랄까. 애착이 컸거든요.

만약 이주한다면 이곳을 팔아서 사무실과 합쳐서 사옥을 짓는 다거나 이곳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건데 어떤 선택이든 모두 제게 어려운 일이네요. 지금부터 38년 후면 이 집이 100년이 되요. 저는 없을지언정 이 집은 그렇게 있게 하고 싶은데 말이죠. 실제로 이축도 고민해봤어요. 글 쓰는 사람이면 여기서 평생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요.

꼭 한옥이 아니어도 집에 마당이 있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파트라도 이런 장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구상도 하고 싶고. 의외로 100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guga
서대문 한옥의 마당풍경

거주자가 들려주는 한옥의 가치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펴낸이 박소현
엮은이 국가한옥센터
지은이 이종민, 김해리, 유예슬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홈페이지 www.auri.re.kr

실측 및 도면 구가도시건축
삽화 홍혜리
디자인·제작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ISBN 979-11-5659-308-9

비매품

© 2020,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도면은 저작권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공간연구원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www.aur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